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6

June 2016 vol.135

이달의 이슈
- 서울의 고용 동향
- 청년층 일자리 대책 방향과 지역의 역할

생생리포트
일자리, 청년이 묻고 답하다

인포그래픽스
서울 청년취업자들에게 물었다 "임금이 많으면 직장 만족도가 더 높을까?"

경제동향
요약/고용/생산/소비/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경제톡톡
FOCUS/ZOOM IN/HOT ISSUE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경제

발 행 인 박원순(서울특별시장),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책임 조달호(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 구 진 장윤선(연구원), 최윤진(연구원)
편집위원 서울연구원
최봉(연구위원), 김범식(연구위원), 김묵한(연구위원)
서울시 경제정책과
김태희(과장), 김선수(팀장), 나성조(주무관)
발 행 일 매월 말
발 행 처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주 소 (우06756)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서초동 391번지)
전 화 (02)2149-1233
팩 스 (02)2149-1289
홈페이지 www.si.re.kr

*본 간행물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SEOUL ECONOMIC BULLETIN

서울경제

6 2016 vol.135

이달의 이슈

06 서울의 고용 동향
조달호(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윤진(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장윤선(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34 청년층 일자리 대책 방향과 지역의 역할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생생리포트

44 일자리, 청년이 묻고 답하다
고태경(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인포그래픽스

52 서울 청년취업자들에게 물었다
“임금이 많으면 직장 만족도가 더 높을까?”
조달호(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장윤선(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경제동향

58 요약
59 고용
63 생산
65 소비
66 물가
67 부동산
70 금융
76 수출입
장윤선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최윤진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경제통통

82 FOCUS / ZOOM IN / HOT ISSUE
고태경(서울특별시청 경제진흥본부)

이달의 이슈

서울의 고용 동향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최윤진 연구원 erdene@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청년층 일자리 대책 방향과
지역의 역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eeky@kli.re.kr

이달의 이슈 I 01

서울의 고용 동향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 최윤진 연구원 erdene@si.re.kr /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Ⅰ. 인구 및 취업자 동향

1.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증가

○2016년 1분기 기준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54만 9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533만여 명으로 나타남. 취업자와 실업자는 각각 507만 7천여 명, 25만 3천여 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를 기록

〈표 1〉 서울시 인구현황

(단위: 천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4
15세이상인구	8,384	8,399	8,442	8,520	8,519	8,561	8,549
생산가능인구*	7,426	7,400	7,398	7,437	7,384	7,376	7,337
경제활동인구	5,180	5,252	5,258	5,307	5,386	5,362	5,330
경제활동참가율	61.8	62.5	62.3	62.3	63.2	62.6	62.3
취업자	4,936	5,012	5,036	5,097	5,146	5,135	5,077
실업자	244	239	222	210	241	227	253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15~64세의 인구를 집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118만 5천여 명으로 2010년(95만 8천여 명) 이후로 23.7% 증가한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이후 0.7% 감소한 737만 6천여 명

- 2016년 1분기 기준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 854만 9천여 명 중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의 85.8%인 733만 7천여 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전체의 14.2%인 121만 2천여 명
- 향후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

〈표 2〉 서울시 연령별 인구 증가 추이

(단위: 천 명, %)

	2010년	201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	7,426 (88.6)	7,376 (86.2)
65세 이상 (비중)	958 (11.4)	1,185 (13.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기준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0.98명[1]이며(전국 1.21명)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2010년 1분기 64.6에서 2016년 1분기 107.4로 급격히 상승

2. 고령층 고용은 확대된 반면, 청년층 고용은 축소

○서울의 2016년 1분기 고용률은 2015년 1분기 대비 0.3%p 낮은 59.4%이고, 실업률은 2015년 1분기보다 0.1%p 높은 4.7%로 나타남

- 2016년 1분기 서울의 취업자 수는 2015년 1분기(510만 2천여 명)보다 0.5% 감소한 507만 7천여 명
- 2016년 1분기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8.5%, 65.2%를 기록

〈표 3〉 서울시 실업률, 고용률 연도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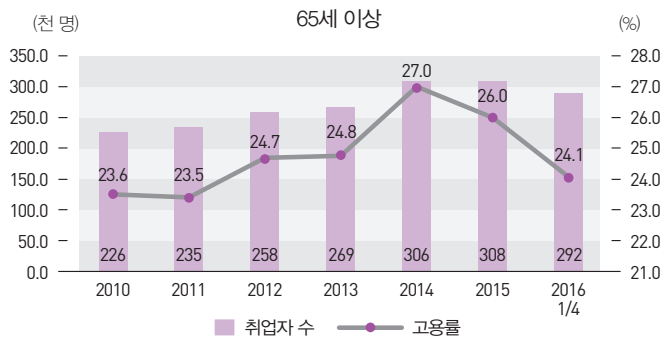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4
실업률	4.7	4.6	4.2	4.0	4.5	4.2	4.7
고용률	58.9	59.7	59.7	59.8	60.4	60.0	59.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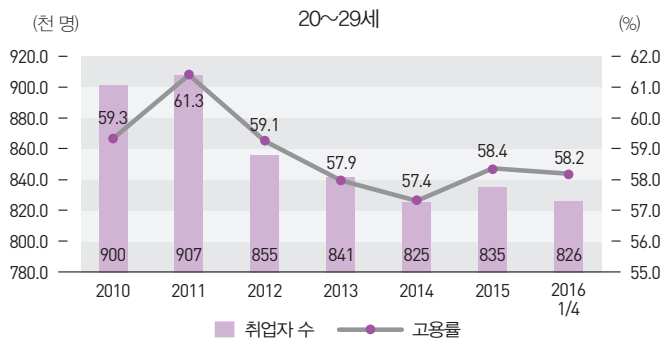
○2015년 기준 서울의 고령층(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수는 31만 7천여 명으로 5년 전인 2010년보다 34.9%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같은 기간 2.4%p 상승한 26.0%를 기록하여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단, 2016년 1분기에는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수가 30만 1천여 명, 고용률이 24.1%로 나타나 2015년 1분기와 비교하여 경제활동인구 수는 0.7% 감소, 고용률은 0.9%p 감소
- 2016년 1분기 기준 고령층 취업자 수는 작년 1분기 때와 비슷한 29만 2천여 명을 기록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 고령층 취업자 수, 고용률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청년층 취업자 수, 고용률 변화 추이

○서울의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는 2015년 97만여 명으로 2010년 대비 6.0% 줄었고, 청년층 고용률과 실업률은 2010년보다 각각 1.0%p, 0.9%p 증가한 44.6%, 9.3% 기록

- 한편, 2016년 1분기 청년층(15~29세) 고용률과 실업률은 2015년 1분

기보다 각각 0.4%p, 2.0%p 상승한 44.6%, 12.3%, 취업자 수는 2015년 1분기 대비 1.0% 감소한 86만 7천여 명

○서울의 30~40대 취업자 수는 2016년 1분기 기준 248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9.0% 비중을 차지하여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 집단으로 나타남

• 2015년에 30~40대 취업자 수는 249만여 명으로 2010년(257만 9천여 명) 대비 3.5% 감소하였고, 취업자 비중은 48.5%로 2010년보다 3.8%p 감소

〈표 4〉 서울시 연령대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4
계	4,936	5,012	5,036	5,097	5,146	5,135	5,077
15~29세	945	958	903	881	872	880	867
20~29세	900	907	855	841	825	835	826
30~39세	1,257	1,250	1,281	1,298	1,283	1,267	1,262
40~49세	1,322	1,323	1,283	1,282	1,253	1,223	1,227
50~59세	967	1,010	1,055	1,092	1,143	1,148	1,122
60세 이상	444	471	513	546	596	618	601
65세 이상	226	235	258	269	306	308	2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상용근로자[2]는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는 감소

○서울의 임금근로자는 2010년 373만 3천여 명에서 2015년 401만 3천여 명으로 7.5% 증가함. 한편, 비임금근로자는 같은 기간 120만 3천여 명에서 112만 2천여 명으로 6.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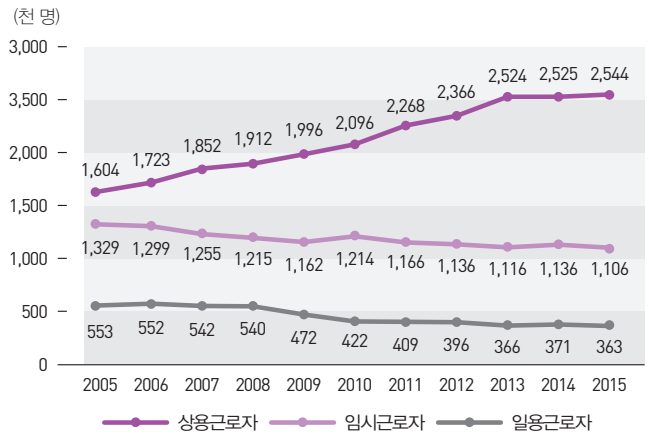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010년 209만 6천여 명에서 2015년 254만 4천여 명으로 21.4% 증가한 반면, 일시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는 같은 기간 각각 8.9%, 14.0%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102만 5천여 명에서 96만 6천여 명으로 5.8% 감소

○2016년 1분기 기준 임금근로자는 2015년 1분기보다 0.1% 늘어난 398만 3천여 명

• 2016년 1분기 기준 서울의 상용근로자는 2015년 1분기 대비 4.4% 늘어난 260만여 명, 임시근로자는 106만 1천 여 명(−4.3%), 일용근로자는 32만 1천 여 명(−15.7%)을 기록

[2] 상용근로자는 ①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②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내규에 채용되어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 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함. 임시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 일용직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혹은 일일 단위인 근로자를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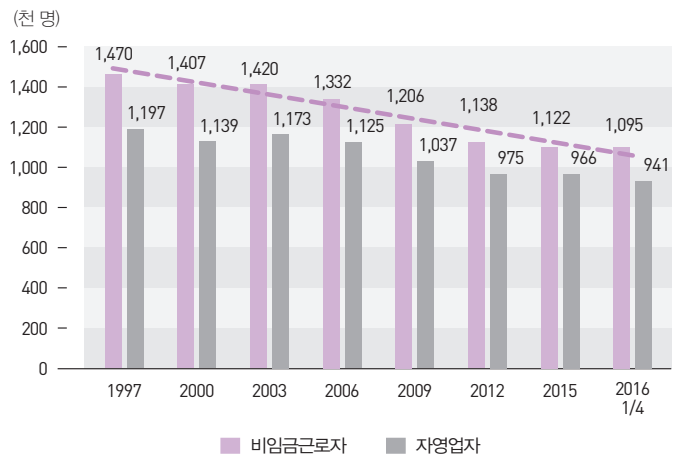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

○서울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2010년 120만 3천여 명에서 2015년 112만 2천여 명으로 6.7% 감소

• 2016년 1분기 기준 서울의 비임금근로자는 2015년 1분기보다 2.4% 줄어든 109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6%를 차지함.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2015년 1분기 대비 2만 8천여 명(−2.9%) 감소한 94만 1천여 명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 서울시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추이

Ⅱ. 산업별 종사자 동향[3]

○2014년 기준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4]은 314조 1,601억 원으로 전년(307조 2,550억 원) 대비 2.2% 증가

• 각 산업이 서울의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업(17.1%), 금융 및 보험업(12.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1.8%), 부동산업 및 임대업(1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9.8%), 제조업(5.6%) 순으로 나타남

〈표 5〉 서울시 주요 산업별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억 원, %)

	2013년	2014년 (잠정치)	GRDP 성장률 (전년 대비)	GRDP 성장률 (5년전 대비)	GRDP 비중 (2014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	3,072,550	3,141,601	2.2	11.7	100
제조업	170,999	175,374	2.6	20.0	5.6
건설업	70,829	74,909	5.8	−10.9	2.4
도매 및 소매업	521,680	536,111	2.8	29.5	17.1
운수업	89,333	90,596	1.4	13.0	2.9
숙박 및 음식점업	84,577	85,784	1.4	−1.8	2.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08,561	308,690	0.0	18.0	9.8
금융 및 보험업	362,274	378,940	4.6	14.8	12.1
부동산업 및 임대업	310,220	315,277	1.6	4.9	1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69,869	371,964	0.6	5.1	11.8
교육서비스업	135,149	134,705	−0.3	−2.3	4.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0,327	127,823	6.2	23.2	4.1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③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과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을 고려하여 분석의 실익이 있는 산업만을 선별적으로 분석

④ 이 절에서 사용한 GRDP 통계는 2010년을 기준연도 가격(연쇄)으로 하며 생산지수 역시 2010년(=100)을 기준으로 한 불변지수 값으로 함. 또한, 「전국사업체조사」와 같이 2016년 현 시점에 2014년 이후 통계치가 집계되지 않은 조사는 자료의 시계열 범위를 2014년으로 제한

○2014년 기준 서울시 전체 산업별 종사자 수는 474만여 명으로 전년(458만 5천여 명) 대비 13.5% 증가했고, 서울에 소재한 사업체 수는 81만 3천여 개로 전년(78만 5천여 개)보다 3.5% 증가

〈표 6〉 서울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추이

(단위: 개,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체 수	723,086	729,731	752,285	780,887	785,094	812,798
종사자 수	4,177,336	4,487,357	4,498,312	4,541,393	4,585,090	4,739,883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4년 기준 서울의 산업별 종사자 수는 도·소매업이 1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은 숙박 및 음식점업(9.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9%) 순임

〈표 7〉 서울시 주요 산업별 종사자 수 추이

(단위: 명, %)

	2013년	2014년	증감률 (전년 대비)	비중 (2014년 기준)
전 산업	4,585,090	4,739,883	3.4	100
제조업	272,972	283,523	3.9	6.0
건설업	286,131	283,226	−1.0	6.0
도매 및 소매업	826,015	859,536	4.1	18.1
운수업	256,611	260,415	1.5	5.5
숙박 및 음식점업	443,079	462,721	4.4	9.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4,316	328,519	4.5	6.9
금융 및 보험업	257,803	257,413	−0.2	5.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9,538	154,768	10.9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99,412	422,525	5.8	8.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60,854	378,699	4.9	8.0
교육 서비스업	313,846	318,984	1.6	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0,428	298,024	6.3	6.3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전통적으로 산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부문의 종사자 수가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늘었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의 종사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도·소매업 종사자 수는 2013년 82만 6천여 명에서 2만 4천여 명(4.1%)이 늘어난 86만여 명을 기록함, 2014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사자 수는 15만 5천여 명으로 전년(14만여 명) 대비 10.9% 증가

1. 도·소매업 부문은 서울에서 GRDP와 종사자 비중 최대

○서울은 전체 산업 중에서 도·소매업 부문이 GRDP와 산업별 종사자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14년 서울의 도·소매업 GRDP는 53조 6,111억 원으로 전년(52조 1,680억 원) 대비 2.8% 증가함. 전체 GRDP에서 도·소매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전년보다 0.1%p 증가

• 2014년 서울의 도·소매업 부문 매출액은 370조 2,609억 원으로 전년(371조 3,783억 원)보다 0.3% 감소했고, 도·소매업의 연간 급여액은 17조 1,623억 원으로 전년(17조 227억 원) 대비 0.8% 증가

○2014년 서울의 도·소매업 부문 종사자 수는 86만여 명으로 전년(82만 6천여 명)보다 4.1%(2만 4천여 명) 증가함. 전체 종사자 중 도·소매업 부문 종사자의 비중은 18.1%로 전년 대비 0.1%p 증가

• 2014년 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23만 3천여 개로 전년(22만 7천여 개) 대비 2.9% 증가함. 도·소매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2013년 3.6명에서 2014년 3.7명으로 0.1명 증가

2.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 GRDP 비중은 낮지만 종사자 비중은 높아

○2014년 서울의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 GRDP는 서울시 전체 GRDP의 2.7%로 산업 내 비중이 미미하지만 종사자 수는 도·소매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

• 2014년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 종사자 수는 46만 3천여 명으로 서울시 전체 산업별 종사자의 9.8%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44만 3천여 명)보다 4.4% 증가

• 2014년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 사업체 수는 12만 7천여 개로 전년(12만 4천여 개) 대비 4.4% 증가했으며,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전년보다 0.1명 늘어난 3.7명을 기록

〈표 8〉 서울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억 원, 개, 명)

산업별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도·소매업	GRDP	451,271	481,500	500,573	521,680	536,111	2.8
	사업체 수	209,989	215,874	225,830	226,629	233,196	2.9
	종사자 수	783,503	786,971	800,698	826,015	859,536	4.1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104.9	104.9	104.5	104.3	-0.2
숙박 및 음식점업	GRDP	90,183	86,059	84,943	84,577	85,784	1.4
	사업체 수	115,415	119,320	122,439	123,634	126,557	2.4
	종사자 수	405,068	417,162	431,554	443,079	462,721	4.4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99.8	98.5	99.3	99.4	0.1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는 꾸준히 증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하 사업 서비스업) 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다음으로 종사자 수가 많고, 각 부문은 전체 산업별 종사자의 8.9%, 8.0% 비중을 기록

- 2014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 수는 42만 3천여 명으로 전년(40만여 명)보다 5.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업체 수는 3만 4천여 개에서 3만 8천여 개로 11.8% 증가
- 2014년 사업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 수는 37만 9천여 명으로 전년(36만 1천여 명)보다 4.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업체 수는 1만 2천여 개에서 1만 4천여 개로 10.2% 증가

○ 사업 서비스업 부문의 GRDP 규모는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사업 서비스업 부문의 GRDP 규모는 2013년 36조 9,869억 원에서 2014년 37만 1,964억 원으로 0.6% 증가했으며, GRDP 비중은 11.8%로 전년 대비 0.2%p 감소
- 2014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 서비스업과 부문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각각 103.4, 121.3으로 전년보다 각각 0.2%, 2.2% 증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 서비스업 부문은 사업체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또한 서울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 서비스업 부문의 종

사자 비중이 다른 시·도들보다 높게 나타남(전국은 각각 4.9%, 4.7% 비중 기록)

〈표 9〉 서울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억 원, 개, 명)

산업별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GRDP	–	–	–	–	–	–
	사업체 수	26,414	29,044	32,515	33,624	37,599	11.8
	종사자 수	367,240	389,581	395,283	399,412	422,525	5.8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98.8	101.3	103.2	103.4	0.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GRDP	356,376	362,460	358,180	369,869	371,964	0.6
	사업체 수	10,033	11,277	12,423	12,495	13,764	10.2
	종사자 수	349,156	324,573	342,891	360,854	378,699	4.9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110.1	116.3	118.7	121.3	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지역소득통계조사 경제활동별 분류에 없음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건설경기 동향조사」

4. 금융업 및 보험업·건설업 부문은 GRDP 규모 대비 고용효과 낮아

○ 금융 및 보험업 부문 GRDP는 서울시 전체 GRDP의 12.1%로 도·소매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종사자 수는 산업별 종사자의 5.4%에 불과해 높은 GRDP 규모에 비해 종사자 비중이 적은 편

- 2014년 금융 및 보험업 부문 GRDP는 전년(36조 2,274억 원)보다 4.6% 증가한 37조 8,940억 원을 기록했지만, 종사자 수는 전년(25만 8천여 명)보다 소폭 감소(−0.2%)한 25만 7천여 명을 기록
- 금융 및 보험업 부문 사업체 수는 2013년 1만여 개에서 2014년 1만 1천여 개로 4.3% 증가함. 금융 및 보험업 부문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114.1로 전년보다 4.4% 상승해 금융 및 보험업 부문의 산업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효과는 낮았던 것으로 분석

○ 건설업 부문도 금융 및 보험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산업성과가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14년 건설업 부문 GRDP(7조 4,909억 원)는 전년 대비 5.8% 증가하고, 사업체 수(2만 2천여 개)와 건설 수주액(12조 687억 원)은 각각 전년 대비 4.9%, 11.9% 증가한 반면, 종사자 수(28만 3천여 명)는 전년보다 1.0% 줄었으며 2011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임

〈표 10〉 서울시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억 원, 개, 명)

산업별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금융 및 보험업	GRDP	329,427	338,030	357,219	362,274	378,940	4.6
	사업체 수	9,581	9,942	10,293	10,165	10,600	4.3
	종사자 수	270,541	267,602	261,894	257,803	257,413	-0.2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108.4	111.2	109.3	114.1	4.4
건설업	GRDP	79,689	73,223	68,616	70,829	74,909	5.8
	사업체 수	19,077	20,156	20,767	21,027	22,049	4.9
	종사자 수	381,531	359,900	309,602	286,131	283,226	-1.0
	건설 수주액	175,870	144,801	99,806	107,881	120,687	11.9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건설경기 동향조사」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문 서비스업 생산과 고용 확대

○2014년 서울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 GRDP(12조 7,823억 원)는 전년(12조 327억 원)보다 6.2% 늘어나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빠른 GRDP 성장률을 기록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은 서울시 전체 GRDP의 4.1%를 차지해 산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GRDP 성장률은 6.2%로 산업 규모가 가장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의 매출액은 2013년 24조 1,308억 원에서 2014년 25조 5,745억 원으로 6.0% 증가했으며,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

○2014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 수는 29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해 부동산업 및 임대업(10.9%) 다음으로 종사자 증가율이 높았으며, 전체 종사자의 6.3%를 차지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의 사업체 수는 2만 6천여 개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고령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에 주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2014년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문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2만 3천여 개, 32만 9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7.8%, 4.5% 증가했고, 서울 전체 산업에서 2.8%, 6.9%를 차지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문 GRDP는 30조 8,690억 원

으로 서울시 전체 GRDP의 9.8%를 차지하며, 매출액[5]은 57조 8,846억 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

〈표 11〉 서울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주요 지표추이

(단위: 억 원, 개, 명)

산업별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GRDP	109,188	112,619	117,738	120,327	127,823	6.2
	사업체 수	22,042	23,275	24,231	24,984	26,224	5.0
	종사자 수	240,221	249,466	264,241	280,428	298,024	6.3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105.5	112.1	115.7	124.0	7.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GRDP	270,256	289,371	303,568	308,561	308,690	0.0
	사업체 수	13,690	16,175	18,597	19,240	22,663	17.8
	종사자 수	295,581	302,726	307,787	314,316	328,519	4.5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105.9	111.3	115.2	116.8	1.4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종사자 급증, 교육 서비스업 부문은 저조

○2014년 서울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3.3%로 GRDP 규모 대비 종사자 비중은 작지만 지난 1년간 종사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GRDP는 31조 5,277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GRDP의 10.0%를 차지함.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의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는 각각 15만 5천여 명, 3만 7천여 개로 전년 대비 10.9%, 5.8% 증가
- 주택거래건수가 2013년 15만여 건에서 2014년 20만여 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매출액과 연간급여액은 각각 18조 4,439억 원, 2조 7,624억 원으로 전년보다 4.8%, 7.8% 증가함. 특히,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은 지난 1년간 연간급여액이 급증

○높은 교육열로 교육 서비스업 부문의 사업체와 종사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로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

- 교육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는 각각 31만 9천여 명, 3만 3천여 개로 전년 대비 1.6%, 3.3% 증가했으며, 교육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는 전체 산업별 종사자의 6.7% 비중을 기록
- 교육 서비스업 부문 GRDP는 2010년 이후 매년 줄고 있으며, 2013년 13조 5,149억 원에서 2014년 13조 4,705억 원으로 0.3% 감소

[5]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는 통신업 부문을 제외한 통계(매출액, 연간급여액 등)를 제공함

〈표 12〉 서울시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억 원, 개, 명)

산업별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부동산업 및 임대업	GRDP	305,223	312,031	309,214	310,220	315,277	1.6
	사업체 수	35,100	35,207	35,214	34,629	36,648	5.8
	종사자 수	142,505	144,271	141,124	139,538	154,768	10.9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108.8	106.6	112.9	120.8	7.0
교육 서비스업	GRDP	139,887	137,605	135,979	135,149	134,705	-0.3
	사업체 수	30,044	31,181	31,810	32,240	33,288	3.3
	종사자 수	297,208	299,858	310,880	313,846	318,984	1.6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0	101.4	101.3	102.9	105.2	-1.8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지역소득통계」, 「서비스업 동향조사」

Ⅲ. 산업별 노동 수요와 임금 동향

1.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서울의 채용인원 수는 구인인원 수에 비해 증가세가 빠름

- 2015년 구인인원은 19만 8천 명으로 5년 전인 2010년에 비해 33.6% 증가했으며, 채용인원은 12만 7천 명에서 17만 6천 명으로 39.2% 늘어 채용인원이 구인인원보다 증가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은 5년 전 대비 증가했으나, 전년보다 감소

- 2014년에 비해 구인인원은 3.8%, 채용인원은 4.1% 감소하여 전년 대비 노동 수요와 공급의 규모 축소
- 또한 2015년 채용률은 89.2%로 2014년 89.5%에 비해 0.3%p 하락하여 전년 대비 인력공급 상황 악화

〈표 13〉 서울시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추이

(단위 :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률 (5년 전 대비)
구인인원	147,983	181,122	170,133	169,398	205,572	197,726	33.6
전년대비 증감	15.0	22.4	-6.1	-0.4	21.4	-3.8	
채용인원	126,773	150,178	149,599	151,045	183,935	176,405	39.2
전년대비 증감	3.0	18.5	-0.4	1.0	21.8	-4.1	
채용률	85.7	82.9	87.9	89.2	89.5	89.2	3.5%p

⑥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⑥

2. 건설업의 구인인원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

○서울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구인인원 수가 4만 7천 명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서울 산업별 구인인원 비중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3.7%), 교육 서비스업(11.0%), 도매 및 소매업(9.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3%) 순으로 높음

○서울에서 건설업의 구인인원 수가 전년 대비(−40.1%) 가장 크게 감소

- 구인인원이 전년 대비 전 산업 평균 증감률(−3.8%)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부문은 건설업(−40.1%), 금융 및 보험업(−31.6%), 부동산업 및 임대업(−29.4%), 도매 및 소매업(−14.9%), 숙박 및 음식점업(−9.3%)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1%), 운수업(5.1%) 등은 전년보다 증가하여 노동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

〈표 14〉 서울시 주요 산업별 구인인원 추이

(단위 : 명, %)

	2010년 (5년 전)	2014년 (전년)	2015년	구인인원 증감률 (5년 전 대비)	구인인원 증감률 (전년 대비)	구인인원 비중 (2015년 기준)
전 산업	147,983	205,572	197,726	33.6	−3.8	100.0
제조업	9,327	8,245	8,008	−14.1	−2.9	4.1
건설업	12,867	25,162	15,069	17.1	−40.1	7.6
도매 및 소매업	16,250	22,173	18,876	16.2	−14.9	9.5
운수업	7,980	13,597	14,286	79.0	5.1	7.2
숙박 및 음식점업	16,600	15,859	14,382	−13.4	−9.3	7.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495	13,353	13,301	−1.4	−0.4	6.7
금융 및 보험업	6,065	7,385	5,049	−16.8	−31.6	2.6
부동산업 및 임대업	3,608	4,436	3,134	−13.1	−29.4	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300	15,843	16,320	58.4	3.0	8.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8,813	42,566	46,820	62.5	10.0	23.7
교육 서비스업	11,705	21,197	21,655	85.0	2.2	1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794	9,878	10,480	80.9	6.1	5.3

주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대부분 채용되어 적합한 노동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2015년 서울에서 전년 대비 채용인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장 크게 감소한 부문은 건설업

- 서울에서 전년 대비 채용인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8%) 순
- 채용인원이 가장 크게 감소한 부문은 건설업(−39.7%), 금융 및 보험업(−31.0%), 부동산업 및 임대업(−25.9%) 순

〈표 15〉 서울시 주요 산업별 채용인원 및 채용률 추이

(단위 : 명, %, %p)

	2014년		2015년		채용인원 증감률 (전년 대비)	채용률 증감 (전년 대비)
	채용인원	채용률	채용인원	채용률		
전 산업	183,935	89.5	176,405	89.2	−4.1	−0.3
제조업	7,630	92.5	7,586	94.7	−0.6	2.2
건설업	24,126	95.9	14,557	96.6	−39.7	0.7
도매 및 소매업	19,250	86.8	17,101	90.6	−11.2	3.8
운수업	7,828	57.6	8,001	56.0	2.2	−1.6
숙박 및 음식점업	13,401	84.5	11,298	78.6	−15.7	−5.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480	86.0	11,307	85.0	−1.5	−1.0
금융 및 보험업	6,992	94.7	4,827	95.6	−31.0	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4,086	92.1	3,027	96.6	−25.9	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808	93.5	14,961	91.7	1.0	−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9,367	92.5	42,829	91.5	8.8	−1.0
교육 서비스업	20,534	96.9	20,904	96.5	1.8	−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166	92.8	10,205	97.4	11.3	4.6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2015년 서울의 채용률[7]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7.4%, 부동산업 및 임대업 96.6%, 건설업 96.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구인인원, 채용인원, 채용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여 노동수요가 증가함과 더불어, 그에 적합한 노동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그다음으로 채용률이 높게 나타난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건설업은 구인인원(각각 −29.4%, −40.1%)과 채용인원(각각 −25.9%, −39.7%) 모두 전년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수와 노동공급이 비슷한 비율로 감소

[7] 채용률=채용인원/구인인원*100

4. 운수업의 미충원율[8]이 가장 높게 나타나 노동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2015년 서울의 미충원인원은 2만 1천 명이며 미충원율은 10.8%로 전년 대비 0.3%p 증가

- 2015년 미충원율이 서울 전 산업 평균(10.8%)보다 높은 부문은 운수업(44.0%), 숙박 및 음식점업(21.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5.0%)
- 미충원율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부문은 숙박 및 음식점업(5.9%p),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8%p), 운수업(1.6%p) 순

○2015년 서울 산업별 미충원인원과 미충원율은 모두 운수업이 각각 6천 3백 명,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미충원율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부문은 숙박 및 음식점업(5.9%p)으로 미충원인원도 25.5% 증가하여 노동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
- 운수업은 전년보다 구인인원이 5.1% 증가하여 노동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미충원율이 42.4%에서 44.0%로 1.6%p 증가하여 적합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시사

〈표 16〉 서울시 주요 산업별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추이

(단위 : 명, %, %p)

	2014년		2015년		미충원인원 증감률 (전년 대비)	미충원율 증감 (전년 대비)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전 산업	21,637	10.5	21,321	10.8	-1.5	0.3
제조업	615	7.5	422	5.3	-31.4	-2.2
건설업	1,036	4.1	512	3.4	-50.6	-0.7
도매 및 소매업	2,923	13.2	1,775	9.4	-39.3	-3.8
운수업	5,769	42.4	6,285	44.0	8.9	1.6
숙박 및 음식점업	2,458	15.5	3,084	21.4	25.5	5.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73	14.0	1,994	15.0	6.5	1.0
금융 및 보험업	393	5.3	222	4.4	-43.5	-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0	7.9	107	3.4	-69.4	-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35	6.5	1,359	8.3	31.3	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199	7.5	3,991	8.5	24.8	1.0
교육 서비스업	663	3.1	751	3.5	13.3	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12	7.2	275	2.6	-61.4	-4.6

자료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8] 미충원율=미충원인원/구인인원*100

5. 서울 월급여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특별 급여액은 감소

○2015년 서울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9]총액은 32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

- 월급여액은 326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하였으나 최근 2년간 증가율이 둔화 추세를 보임
- 특별급여[10]는 44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6,417원(5.6%) 감소했으며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표 17〉 서울시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단위 : 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전 대비 증감
월급여		2,774,256	2,921,496	3,007,110	3,168,798	3,199,814	3,261,561	17.6
	전년 대비 증감	5.7	5.3	2.9	5.4	1.0	1.9	
	정액 급여	2,686,340	2,846,851	2,938,614	3,092,925	3,114,382	3,169,585	18.0
	초과 급여	87,916	74,645	68,496	75,872	85,432	91,976	4.6
특별급여		528,692	493,464	482,663	478,051	472,861	446,444	-15.6
전년 대비 증감		5.9	-6.7	-2.2	-1.0	-1.1	-5.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6. 금융 및 보험업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많아

○2015년 서울의 산업 중 금융 및 보험업의 월급여액이 438만 5천 원으로 가장 많음

- 월평균 임금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438만 5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15만 2천 원, 건설업 381만 1천 원 순
- 특별급여도 금융 및 보험업이 154만 5천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0.9% 증가

○2015년 서울의 산업 중 전년 대비 월급여액과 특별 급여액 상승률이 가장 큰 부문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각각 8.5%, 95.4%)

- 금융 및 보험업(0.0%), 교육서비스업(0.2%),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0.4%)의 전년 대비 월급여액 증가율은 서울의 전 산업 평균 증가율(1.9%)보다 낮았으나, 임금 금액은 여전히 전 산업 중 많은 편

[9] 월급여액: 정액급여 + 초과급여

[10]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이며 연간 특별급여를 12로 나눈 월평균 금액

〈표 18〉 서울시 주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

(단위 : 원, %)

	2014년		2015년		월급여액 증감률 (전년 대비)	특별급여 증감률 (전년 대비)
	상용 월급여액	상용 특별급여	상용 월급여액	상용 특별급여		
전 산업	3,199,814	472,861	3,261,561	446,444	1.9	-5.6
제조업	2,960,599	178,215	3,098,785	125,789	4.7	-29.4
건설업	3,541,547	347,777	3,810,645	205,750	7.6	-40.8
도매 및 소매업	3,166,624	574,561	3,236,703	493,561	2.2	-14.1
운수업	3,005,809	771,084	3,066,075	870,465	2.0	12.9
숙박 및 음식점업	2,050,074	133,871	2,162,060	101,150	5.5	-24.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559,187	447,030	3,644,241	389,898	2.4	-12.8
금융 및 보험업	4,384,537	1,531,482	4,384,574	1,544,886	0.0	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2,517,066	125,276	2,559,126	163,687	1.7	3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136,925	445,151	4,151,579	395,188	0.4	-1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796,032	83,954	1,948,709	164,061	8.5	95.4
교육 서비스업	3,524,248	226,807	3,532,674	172,410	0.2	-2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670,498	514,207	2,777,285	477,565	4.0	-7.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7. 근로시간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는 운수업

○2015년 서울 전 산업 평균 근로시간은 180.0시간(주당 평균 45.0시간)이며 시간당 임금은 평균 1만 8천 원

- 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0.6%, 시간당 임금은 전년보다 1.3% 증가하여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시간당 임금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서울에서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200.4시간(주당 평균 50.1시간)이며 전년 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근로시간이 3.5%로 가장 크게 증가

-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200.4시간(주당 평균 50.1시간),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2.0시간(주당 평균 48.0시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6.9시간(주당 평균 46.7시간) 순
- 근로시간이 전년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부문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3.0%), 교육 서비스업(0.9%) 순

8. 근로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2015년 서울에서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부문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2만 5천 원이며 전년 대비 시간당 임금은 건설업이 6.5%로 가장 크게 증가

-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2만 5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만 4천 원, 건설업 2만 1천 원,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만 1천 원, 교육 서비스업 2만 원 순
- 시간당 임금이 전년보다 가장 많이 오른 부문은 건설업(6.5%), 숙박 및 음식점업(6.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5.4%) 순
-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시간당 임금(각각 1만 1천 원, 1만 3천 원, 1만 원)이 서울 평균(1만 8천 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긴 업무시간에 대한 보상이 크지 않음을 시사
-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지만 임금은 여전히 서울에서 가장 낮은 수준

〈표 19〉 서울시 주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및 시간당 임금

(단위: 시간, 원, %)

	2014년		2015년		근로시간 증감률 (전년 대비)	시간당임금 증감률 (전년 대비)
	총 근로 시간	시간당 임금	총 근로 시간	시간당 임금		
전 산업	178.9	17,886.0	180.0	18,119.8	0.6	1.3
제조업	181.0	16,356.9	182.2	17,007.6	0.7	4.0
건설업	178.4	19,851.7	180.3	21,135.0	1.1	6.5
도매 및 소매업	180.3	17,563.1	180.1	17,971.7	-0.1	2.3
운수업	179.9	16,708.2	179.6	17,071.7	-0.2	2.2
숙박 및 음식점업	202.4	10,128.8	200.4	10,788.7	-1.0	6.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5.9	20,234.2	177.3	20,554.1	0.8	1.6
금융 및 보험업	174.5	25,126.3	173.8	25,227.7	-0.4	0.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4	13,150.8	192.0	13,328.8	0.3	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5.3	23,599.1	173.6	23,914.6	-1.0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1.5	9,895.5	186.9	10,426.5	3.0	5.4
교육 서비스업	173.0	20,371.4	174.5	20,244.6	0.9	-0.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3.2	15,418.6	179.2	15,498.2	3.5	0.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Ⅳ. 특집: 서울의 청년고용[11]

1. 서울의 청년취업자는 대부분 임금근로자이며, 그중 상용직이 약 80%

○ 서울의 청년취업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고, 대부분 임금근로자

- 서울의 청년취업자는 성별로 남성(55.8%)이 여성(44.2%)보다 많음
- 서울의 청년취업자는 종사상지위별로 임금근로자(94.1%)가 대부분이며, 전국의 청년 임금근로자(92.3%)보다 비중이 더 높음
- 그중 상용직이 79.3%, 임시직이 13.5%, 일용직이 1.3%를 차지
- 서울의 청년 비임금근로자는 5.9%로 전국(7.8%)보다 1.9%p 낮았으며, 그중 자영업자 3.5%, 고용주 2.3%, 무급가족종사자 0.1%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20〉 전국, 서울 청년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단위: %)

	전국			서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임금근로자	91.8	93.0	92.3	93.8	94.4	94.1
상용직	81.4	80.8	81.1	80.6	77.5	79.3
임시직	9.0	11.0	9.9	11.7	15.7	13.5
일용직	1.4	1.2	1.3	1.5	1.1	1.3
비임금근로자	8.2	7.0	7.8	6.2	5.6	5.9
고용주	3.4	1.9	2.8	2.7	1.9	2.3
자영업자	4.3	4.0	4.2	3.3	3.7	3.5
무급가족종사자	0.5	1.1	0.8	0.2	0.0	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청년패널조사」

○ 서울 청년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대졸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청년취업자의 최종 학력은 대졸 이상(53.4%), 전문대졸(27.9%), 고졸(18.6%) 순

[11] 한국고용정보원의『청년패널조사』 원데이터를 가공하여 분석한 것으로 2014년 8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만 22~36세 대상(앞의 청년 기준과 다름)으로 한 설문조사이며, 서울 청년취업자 표본 수 907명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

• 서울 청년취업자의 대졸 이상 비중은 53.4%로 전국(49.9%)보다 크고, 전문대졸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자 청년취업자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표 21〉 전국, 서울 청년취업자의 성별, 학력별 분포

(단위: %)

		전국			서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성별		56.6	43.4	100.0	55.8	44.2	100.0
학력별	고졸	25.7	16.4	21.7	19.1	18.0	18.6
	전문대졸	26.0	31.6	28.4	24.0	32.9	27.9
	대졸 이상	48.3	52.0	49.9	56.8	49.1	53.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청년패널조사」

2. 서울에서 청년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이며, 남성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은 부동산·임대인 반면, 여성 비중이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

○서울의 청년취업자 대부분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에서 청년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14.2%), 제조업(13.8%), 출판·영상·정보(9.9%), 보건 및 사회복지(8.5%), 전문·과학·기술(8.4%) 순

• 서울 청년취업자가 2순위로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제조업(13.8%)으로 나타났지만, 전국(21.8%)에 비해 비중이 현저히 낮음

○서울에서 남성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부동산·임대인 반면,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

• 서울의 남성 청년취업자는 제조업(18.1%), 도매 및 소매(14.9%), 출판·영상·정보(12.1%)순으로 많은 반면, 여성 취업자는 보건 및 사회복지(14.7%), 교육서비스(14.6%), 도매 및 소매(13.4%)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도 동일한 순서

• 남성 청년취업자가 여성보다 월등히 많은 산업은 부동산·임대(82.3%), 건설업(77.4%), 제조업(73.0%)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여성 청년취업자가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산업은 교육서비스(81.3%), 보건 및 사회복지(76.5%)로 분석됨

〈표 22〉 전국, 서울 청년취업자의 성별, 산업별 비중

(단위: %)

	전국					서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 산업	성별	전 산업	성별	전 산업	전 산업	성별	전 산업	성별	전 산업
제조업	29.2	75.6	12.3	24.4	21.8	18.1	73.0	8.5	27.0	13.8
건설업	5.7	80.9	1.8	19.1	4.0	5.9	77.4	2.2	22.6	4.3
운수업	3.2	71.5	1.7	28.5	2.5	3.5	64.3	2.4	35.7	3.0
출판,영상, 정보	7.5	69.4	4.3	30.6	6.1	12.1	68.5	7.0	31.5	9.9
금융, 보험	3.9	47.7	5.6	52.3	4.7	6.6	57.3	6.2	42.7	6.4
도매 및 소매	14.1	59.5	12.5	40.5	13.4	14.9	58.4	13.4	41.6	14.2
숙박 및 음식점업	4.7	56.3	4.8	43.7	4.7	5.1	49.6	6.6	50.4	5.8
부동산, 임대	1.5	67.3	0.9	32.7	1.2	2.7	82.3	0.7	17.7	1.8
전문,과학, 기술	5.9	58.5	5.5	41.5	5.7	9.6	64.0	6.8	36.0	8.4
사업시설, 사업지원	2.5	47.3	3.6	52.7	3.0	2.9	41.0	5.3	59.0	4.0
예술, 스포츠,여가	2.0	54.8	2.2	45.2	2.1	3.3	59.7	2.9	40.3	3.1
협회, 수리, 개인	4.6	62.0	3.7	38.0	4.2	3.8	54.3	4.0	45.7	3.9
행정,국방, 사회보장	6.3	66.9	4.1	33.1	5.3	4.2	67.8	2.5	32.2	3.5
교육서비스	4.1	24.4	16.6	75.6	9.6	2.7	18.7	14.6	81.3	7.9
보건 및 사회복지	3.1	17.3	19.4	82.7	10.2	3.6	23.5	14.7	76.5	8.5
기타	1.6	64.0	1.1	36.0	1.4	1.0	37.0	2.2	63.1	1.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청년패널조사」

3. 서울의 청년취업자 평균 임금은 239만 원, 남성이 여성보다 50만 원 더 벌어

○서울의 청년취업자 월평균 임금은 239.4만 원이며, 남성(261.8만 원)이 여성(211.6만 원)보다 50.2만 원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 200.2만 원, 전문대졸이 213.4만 원, 대졸 이상이 271.9만 원으로 학력이 올라갈수록 월평균 임금도 증가

○서울 청년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간의 임금 차이가 심한 것으로 분석됨

-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이 253.1만 원으로 가장 큰 반면, 임시직은 185.5만 원, 일용직은 89.6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일용직은 대부분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

〈표 23〉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성별, 학력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남자	여자	전체
성별		261.8	211.6	239.4
학력별	고졸	219.5	176.9	200.2
	전문대졸	224.5	203.7	213.4
	대졸 이상	293.7	238.7	271.9

주 무응답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청년패널조사」

〈표 24〉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

		임금	비중
임금근로자		239.4	92.3
	상용직	253.1	81.1
	임시직	185.5	9.9
	일용직	89.6	1.3

주 무응답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청년패널조사」

○서울 청년취업자가 월평균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은 금융·보험업(318.9만 원)

- 월평균 임금이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318.9만 원), 부동산·임대(284.7만 원), 제조업(268.6만 원), 건설업(268.5만 원), 출판·영상·정보(251.4만 원) 순
- 월평균 임금이 적은 산업은 교육서비스(193.3만 원), 협회·수리·개인(200.4만 원), 행정·국방·사회보장(207.6만 원), 사업시설·사업지원(209.3만 원) 순

〈표 25〉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산업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

	임금	취업자 수 비중
제조업	268.6	21.8
건설업	268.5	4.0
운수업	239.1	2.5
출판,영상,정보	251.4	6.1
금융, 보험	318.9	4.7
도매 및 소매	235.3	13.4
숙박 및 음식점업	214.4	4.7
부동산, 임대	284.7	1.2
전문,과학,기술	242.1	5.7
사업시설,사업지원	209.3	3.0
예술,스포츠,여가	232.9	2.1
협회,수리,개인	200.4	4.2
행정,국방,사회보장	207.6	5.3
교육서비스	193.3	9.6
보건 및 사회복지	212.1	10.2

주 기타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청년패널조사」

4. 청년취업자, 미취업자, 학생의 구직활동 특징

○이미 취업한 취업자들은 대부분 지인 네트워킹을 통해 구직 정보를 취득했던 반면, 미취업자들은 취업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직 정보 취득경로 1순위는 '민간 취업사이트·카페(18.0%)'라는 응답이 전체적으로는 높았으나, 취업자들은 주로 '친구 또는 선후배(21.0%)', 미취업자들은 '민간 취업사이트·카페(26.8%)', 학생들은 '학교선생님(교수)·지인(31.1%)'에서 구직 정보를 취득하는 등 정보 취득 경로가 서로 상이함

○이미 취업한 취업자들은 수입이나 보수에 대한 불만족이 애로사항인 반면, 미취업자나 학생들은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잘 몰라서 구직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취업자들은 구직 활동 시 어려운 점 1순위로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27.4%)'를 꼽았고, 미취업자들과 학생들은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각각 37.4%, 47.0%)'라고 응답해 미취업자나 학생들이 취업정보 부족으로 구직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26〉 서울시 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구직 시 정보 취득 경로

(단위: %)

	학교 선생님 (교수), 지인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 경력개발센터 등	신문, TV등 언론매체	생활 정보지 (취업자, 미취업자)	부모 또는 친척	친구 또는 선후배	사설취업 알선기관
학생	31.1	19.5	4.0	0.0	0.0	5.3	3.0
취업자	14.9	1.4	1.1	1.4	9.1	21.0	3.7
미취업자	8.2	9.2	3.8	2.7	0.0	12.5	6.0
전체	16.7	5.5	1.9	1.4	6.3	17.3	3.9
	공공기관 취업사이트 (워크넷 등)	민간 취업사이트/ 카페 등	회사에 직접연락	학원	현장실습/ 인턴십	헤드헌터 (서치 컨설턴트)	기타
학생	15.1	10.5	9.3	1.2	1.0	0.0	0.0
취업자	13.9	18.0	8.9	2.5	0.6	1.7	1.9
미취업자	15.3	26.8	6.6	0.0	0.0	2.0	7.0
전체	14.3	18.0	8.6	1.9	0.6	1.5	2.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청년패널조사」

〈표 27〉 서울시 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구직 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경력이 부족해서	성차별 때문에	학력, 기능 등 요구자격이 맞지 않아서
학생	47.0	12.2	13.0	0.8	12.1
취업자	19.7	10.1	15.9	0.0	5.2
미취업자	37.4	12.3	14.1	2.1	11.6
전체	26.5	10.7	15.2	0.4	7.2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서류/면접 시험의 지속적인 탈락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자격증이 없어서	기타
학생	4.5	4.9	4.3	1.2	0.0
취업자	27.4	10.1	4.2	1.8	5.6
미취업자	4.7	7.6	9.0	0.0	1.2
전체	20.6	8.9	4.9	1.4	4.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청년패널조사」

○취업자들은 학생이나 미취업자들보다 스펙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펙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취업자 비중이 스펙을 준비한 취업자 비중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됨

- 취업자들은 '업무관련 자격증(3.15점)', '학벌(3.07점)', '학점(2.83점)' 등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스펙으로 봄
- 취업을 위해 준비한 스펙은 업무관련 위주로 '업무관련 자격증(30.0%)',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28.8%)', '학점(25.1%)'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준비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학생이나 미취업자들에 비해 매우 낮음

○미취업자들은 '학벌'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스펙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으며, 취업을 위해 '학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업무관련 자격증'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미취업자들은 '학벌(3.62점)', '업무관련 자격증(3.53점)', '영어회화 능력(3.45점)' 등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스펙으로 보았으며, 취업을

위해 '학점(41.9%)', '컴퓨터 관련 자격증(35.7%)', '업무관련 자격증(34.1%)' 등을 준비하고 있음

〈표 28〉 서울시 학생, 취업자, 미취업자가 생각하는 스펙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점)

	학벌	학점	토익·토플 등 공인영어 성적	영어회화 능력	제2외국어 능력	한자능력	컴퓨터 관련 자격증
학생	3.83	3.72	3.70	3.68	2.98	2.50	3.21
취업자	3.07	2.83	2.67	2.65	2.41	2.15	2.82
미취업자	3.62	3.31	3.35	3.45	2.81	2.41	3.13
전체	3.27	3.04	2.93	2.93	2.55	2.24	2.93
	업무 관련 자격증	어학연수 등 해외경험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공모전 등 수상경력	석·박사 학위	봉사활동 경험	동아리 활동
학생	3.85	3.32	3.48	3.06	3.06	2.75	2.64
취업자	3.15	2.40	2.78	2.28	2.24	2.19	2.13
미취업자	3.53	2.77	3.16	2.71	2.77	2.48	2.49
전체	3.31	2.60	2.95	2.46	2.44	2.32	2.2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청년패널조사」

○학생들은 모든 유형의 스펙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현재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학점', '공인 영어성적'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생들은 '업무관련 자격증(3.85점)', '학벌(3.83점)', '학점(3.72점)' 등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스펙으로 보았고, 취업을 위해 '학점(67.1%)', '토익·토플 등 공인영어성적(60.6%)', '영어회화 능력(43.0%)' 등을 준비하고 있음

이달의 이슈 | 02

청년층 일자리 대책 방향과 지역의 역할

이 규 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eeky@kli.re.kr

1. 청년층 고용문제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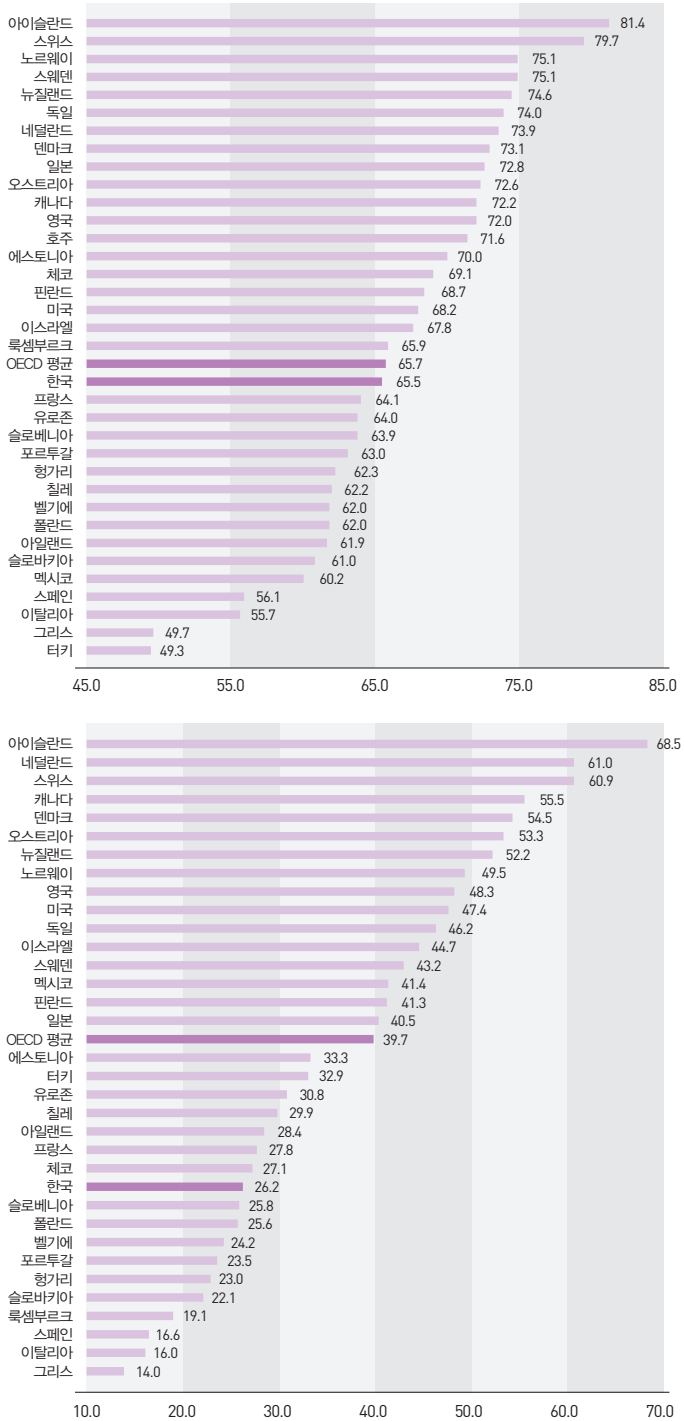
청년층 고용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통계청의 201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9%(실업자 수 48만 4천 명)로 전체 실업률(3.9%)의 2.8배 수준이다. 실업자와 실제 시간 관련 추가취업 희망자[1], 그리고 잠재구직자를 모두 합하면 청년층 취업애로 계층은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고용률은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2004년 청년층 고용률은 45.1%였으나 2015년에는 41.3%를 보이고 있다. 국제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청년층(15~24세) 고용률은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13.9%p 낮은 수준이다(2014년 기준). 우리보다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국가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이 있다.

청년층 고용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추세적 특징으로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청년층 노동공급의 확대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청년층 고용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1]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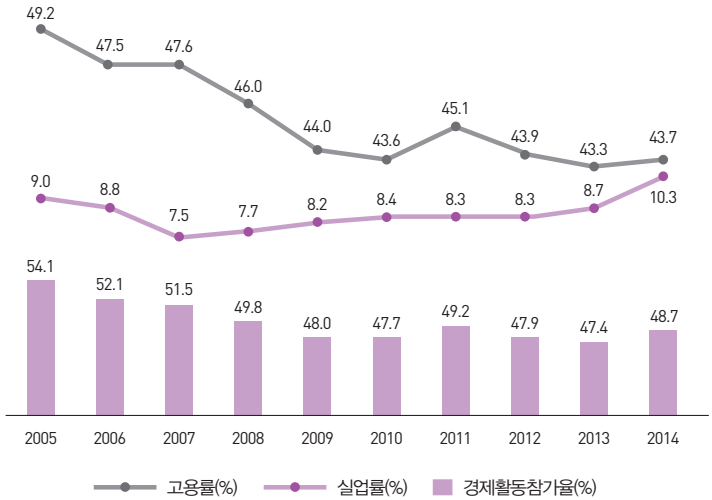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박사, 현 한국노동연구원 지역고용연구실장
- 최근 연구: “이민정책의 국제비교(2015)”, “한국의 지역고용전략(2014)” 등



주 상단은 15~64세 기준 고용률이며 하단은 14~24세 기준임

자료 OECD Stat Extracts, http://stats.oecd.org

〈그림 1〉 고용률의 국제비교(2014)



〈그림 2〉 서울시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 추이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형식으로 청년층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지자체도 중앙정부와 궤를 같이하거나 혹은 독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원인과 진단, 그리고 정책처방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실업대책의 하나로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청년고용대책은 2000년 이후부터는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2004년에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2009년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2010년 이후 청년고용대책은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정부는 2010년 4월에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발표한 후 2011년 10월과 2012년 9월에 2차 및 3차 대책을 발표하였다. 2014년 4월과 2015년 7월, 그리고 2016년 4월에도 범정부 차원의 청년 고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 대책은 청년층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보조금 제도의 도입이라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 대책도 중앙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유사한 틀을 갖추고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전략은 1) 일 경험 기회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진입 지원, 2) 맞춤형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개선, 3)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개선, 4) 고용지원 및 창직(job creation) 지원 강화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뉴딜 일자리 확대, 현장중심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 밀착지원 서비스 지원, 산업수요에 맞는 청년 전문인력 양성, 첫 일자리 경험 지원 등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정책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정책처방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행전략이 미흡한 측면도 있다. 아울러 청년층 대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는 대안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이러한 대안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탓도 있다.

2. 청년층 고용해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

청년일자리 문제는 청년층 문제를 넘어 일자리 정책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도 하며,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넘어 청년대책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에서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정책처방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의 한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층 노동시장 문제를 진단하는 논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졸 고학력 인력의 활용이 미흡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수급 미스매치(부조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층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은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초기 노동시장 진입에 초점을 맞춘 노동공급 중심의 예산투입은 결과적으로 청년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청년인턴과 같은 사업주 지원방식의 일자리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유인효과가 떨어져 정책사업으로 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력양성이나 훈련정책 또한 투입된 인적자본의 성과를 확대하고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만으로는 취업자의 직무능력과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여력이 큰 중소기업 현장 수요 간의 괴리현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임금·복지·장래성 등 3저(低) 문제 개선이 미흡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유인이 적극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여건에서 다양한 훈련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촉진 및 경력형성과 노동시장에서 상향이동이라는 취업성과의 지속성 관점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개별적 사업추진을 통해서는 일자리 성과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청년층 고용대책의 상당 부분은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초기 노동시장 취업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이러한 일자리에서 청년층에 대한 수요가 증대해야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의 방향은 노동시장 진입촉진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청년층 일자리의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 비전이 보인다면 초기 노동시장 진입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다양한 일자리 경험이 좀 더 나은 일자리로의 디딤돌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며 기존에 많이 지적되어온 이행노동시장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일자리 사업들을 정비하고 수요자 맞춤형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책 방향은 매우 유효하며, 이를 위한 사업의 전달체계와 성과관리의 재구축 및 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나, 여전히 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청년층 일자리 대책 방향과 지역의 역할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위한 정책기조 변화와 부합하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화된 정책처방을 벗어나 목표 집단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체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 니트(NEET), 신규졸업자, 청년층 취업취약계층, 초기 노동시장 진입 후 이탈자 등 청년층 내 다양한 정책대상이 존재하며, 이들의 정책수요는 각각 차별성을 갖고 있는 만큼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계층보다 더 다양한 정책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실천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의중임금이나 취업희망 분야와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이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수요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공급중심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갖는 한계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

출 문제는 경제성장이나 산업정책이 주된 해법이지만 성장률 제고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수요를 늘리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존 일자리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의 개편과 같은 방안 이외에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모델을 연계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역단위의 일자리 창출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 일부를 추가적인 일자리에 할애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모델로서 일자리의 질이 담보되는 공생의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계층의 양보가 아닌 세대 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공생에 대한 논의가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청년층의 경력형성 지원과 이에 부합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저숙련 및 저고용 함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고학력 인력의 활용이 미흡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동시장정책 및 산업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원을 통해 격차를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력부족을 겪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양호하거나 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는 기업 등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에 취업을 유도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과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해법으로 노동시장 이행촉진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청년일자리 대책은 노동시장 진입촉진 지원뿐만 아니라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력형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이행촉진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청년대책이 취업지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고용·교육·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년 고용문제의 해법을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경제정책), 교육제도 개선(교육정책),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노동시장 정책),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산업정책), 지역차원의 고용전략(지역고용정책) 등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청년층 일자리 대책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임은 분명하지만 주거문제나 복지문제 등이 결합되었을 때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정책처방에 대해서는 종종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문제의 인식강도와 정책접근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그리고 예산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정책의 연계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특화적인 청년고용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부합하는 핵심역할을 청년층이 담당하도록 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의 초석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차원에서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일자리의 개발과 청년의 지역정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훈련이나 일자리 제공과 같은 부문적인 접근으로는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는 더 확장성을 갖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자체 단위 대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역에서의 청년층 일자리 대상과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지역의 노동시장 권역 및 청년층의 노동이동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는 청년대책을 일자리 문제를 벗어나 청년 대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는 지역 내 청년의 정착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지만 지역에서의 다양한 연령계층의 일자리 문제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 내 계층 간 상생의 모델이 필요한 지점이다. 넷째는 정책 추진 체계의 효율성이다. 지자체, 학교, 청년단체, 기업체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청년 니트, 지역 내 취약 청년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내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안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실천 모델로 나타나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자 체감성을 높이는 실행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고용노동부, 2014, “2014 한 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
2. 관계부처 합동, 2010, “청년 내일 만들기(1차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0.10.14
3. _____, 2011, “청년 내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1.5.19
4. _____, 2014, “학교에서 직장까지: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4.15.
5. 이규용, 2015,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노동리뷰 2015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6. 통계청, 2016, “고용동향”, 2016.4

생생리포트

일자리, 청년이 묻고 답하다

Ⅰ. 일자리 현장을 만들다

Ⅱ. 일자리 현장을 바꾸다

Ⅲ. 일자리 현장을 이어가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고태경 kotaekyung@seoul.go.kr

생생리포트

일자리, 청년이 묻고 답하다

Ⅰ. 일자리 현장을 만들다

1. 우리의 자리를 고민하다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하던 날, 기억나시나요? 공책에도 연필에도 내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 선생님의 교탁 앞에는 내 이름이 적힌 자리배치도가 있었죠. 내 자리라고 부르고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고단함을 견뎌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담보로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거울 속의 나를 보며 힘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매일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족함 없는 스펙을 쌓으면서 동시에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로 경험도 만들어야 하는 청년들에겐, 어느 순간 대학가의 낭만이라는 것은 전설처럼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다

서울의 청년 3명 중 1명은 실질적 실업상태에 있습니다. 대학마다 취업률을 높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로 버텨내기엔 매번 젊음과 열정을 취업이라는 결과로 평가당하는 기분이 무겁기만 합니다.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청년들이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 후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더욱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일터를 떠난 여성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세대와 성별을 막론하고 모든 시민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 일자리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일자리야말로 먹고사는 문제의 출발점이자, 복지정책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2015년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총 99개의 현장에서 3,900여 명의 시민을 만났습니다. 매

일 12시간 이상 현장에서 '일자리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오직 한 가지, '일자리'만 고민했습니다.

'일자리대장정'은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도 주목했습니다.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간기업, 산업계, 노동계 등이 총출동해 함께 일자리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책상에서 만드는 정책이 아닌, 현장을 직접 보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며, 일자리가 있는 현장을 찾아가 경청하고,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만들 수 있다면 언제 어느 곳이든 서울시가 찾아가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림 1〉 일자리대장정 상징 이미지

Ⅱ. 일자리 현장을 바꾸다

1. 청년과 공감하고 연대하다

'일자리대장정'의 모든 일정은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열정, 패기, 도전…청년 전용에 가깝던 이 단어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청년 세대 사이에는 'N포 세대', '문송합니다'에 이어 '헬조선', '흙수저' 같은 한숨과 자조, 체념이 퍼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가파르게 올라 12%를 웃돌고, 체감 실업률은 30%에 육박하는 고용 절벽의 시대, 어려움을 견디고 더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응원마저 '희망 고문'이라고 느껴지는 현실에서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취업 준비장으로, 과감히 창업을 시도해 묵묵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작업장으로, 서울 일자리대장정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출근의 기쁨, 일상의 행복, 노동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재정은 제한적이지만, 손을 잡아주고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일자리대장정팀과 청년의 만남은 일자리에 대한 화려한 약속이나 거창한 계획 대신, 지금 여기 함께, 기회를 찾고 연결하고 만들어가는 연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2. 청년의 도전이 현장을 바꾸다

실패와 두려움의 울타리가 되는 대학을 상상해보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장 찬란한 도전의 시기에 스펙쌓기에 몰두해야만 하는 우리 젊은이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도전을 무모함으로 보지 않는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입니다.

푸드트럭 협동조합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양대학교에는 교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HYCOOP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학교가 실습의 현장으로 바뀐 것이죠. 조리학과 학생은 영양과 맛을 고려한 메뉴를 고민하고, 의상학과 학생은 유니폼을 디자인합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은 수익성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에서는 고가의 시제품을 무료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를 무료로 활용해 시제품을 제작해볼 수 있습니다. 창업을 꿈꿀 수 있는 공간이죠.

캠퍼스 안에서 머물던 창업교육이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화여대52길, 이곳은 '이화 스타트업 52번가'로 불립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청년 창업기업이 이곳에 입주해 창업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림 2〉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그림 3〉 서울대학교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 회의실

최초,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몸담는 모든 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넓혀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경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도전을 권할 수 있는 세

상,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대장정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행복이 곧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Ⅲ. 일자리 현장을 이어가다

1. 도전의 기회를 넓히다

다양한 수공예품과 푸드트럭 장터, 흥겨운 거리공연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공연무대에서는 기타로 연주하는 버스킹 공연과 가족단위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입니다.

2015년 10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처음 문을 연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은 2016년 6월 현재 청계광장, DDP 등 세 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중 목동운동장까지 총 4곳의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은 찾는 이들에게는 빌딩 숲 속의 새로운 활력이자, 이곳을 만들어가는 이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도전 기회의 장입니다.

〈그림 4〉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DDP 포스터

젊은 나이에 친구들과 창업한 어엿한 최고경영자, 레스토랑 운영을 꿈꾸는 푸드트럭 대표 등 밤도깨비 야시장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이나 공방, 상점을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형 야시장'은 새로운 가능성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 명소의 매력 위에 독특한 테마를 얹고, 일자리로 이어지는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까지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말하자면 밤도깨비 야시장은 상인과 고객, 문화를 잇는 새로운 장터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시민은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미래형 장터에서 '유일한' 상품을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진화하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구축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림 5〉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여의도한강공원

2. 함께 자리를 만들다, 함께 일을 만들다

>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함께 서로 협력하는 힘이 있어야 마침내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일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역량과 외부의 환경이 함께 할 때, 내부에서 깨고 나오려는 힘과 외부에서 깨주는 힘이 만났을 때, 비로소 창조적인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 **– 2015년 일자리대장정 출정사 중**

의료기관에서 직접 꼽은 의료서비스 분야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중학생부터 현직 의사까지 70명의 다양한 시민이 무박2일 동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구체화해 실제 시제품으로 만들어내는 '헬스케어 메이커톤'이나, 아이디어와 협업으로 복지, 환경, 문화관광, 건강, 교통 등 각 분야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0명이 지성을 모으는 '해커톤'은 변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는 좋은 예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태고, 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며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는 기회에 관심을 더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2015년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일자리대장정은 2016년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현장을 찾아가는 연중 캠페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있을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고, 현장에서 시민의 근심과 기업의 고충을 경청하는 운영방식은 그대로이지만, 고민과 걱정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한 현장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장에서의 건의는 2016년에는 지켜진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자그마한 것들뿐이라고요? 시도와 도전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변화와 도전이 이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대장정이 우리 모두에게 신나는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이 신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일자리대장정이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꿈에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많은 일자리를 나누고, 그래서 함께 일하는 서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일자리대장정 버스를 기다리신다구요? 그럼 서울일자리대장정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그림 6〉 헬스케어 메이커톤 현장

〈그림 7〉 어떤 현장이든 달려가는 일자리대장정 버스

인포그래픽스

서울 청년취업자들에게 물었다 “임금이 많으면 직장 만족도가 더 높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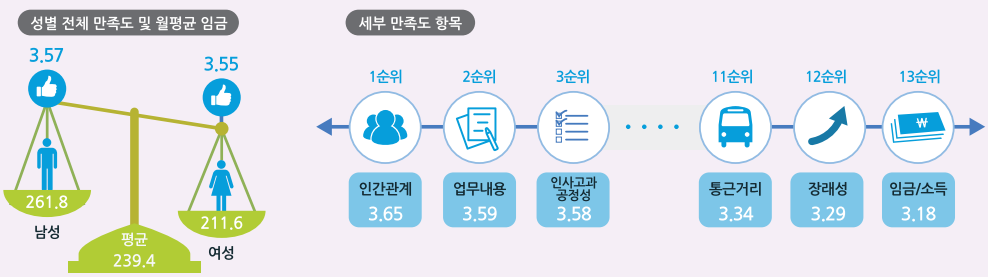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인포그래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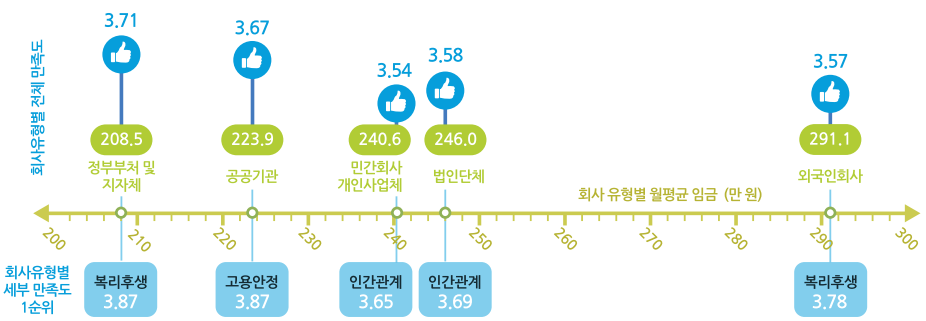
서울 청년취업자들에게 물었다 “임금이 많으면 직장 만족도가 더 높을까?”

서울 청년취업자들에게 물었다
“임금이 많으면 직장 만족도가 더 높을까?”

서울 청년취업자 직장 만족도 및 월평균 임금 (5점 만점, 만 원)



서울 청년취업자 회사 유형별 직장 만족도 및 월평균 임금 (5점 만점, 만 원)



주: 무응답(응답거절, 모름)은 제외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4 ,「청년패널조사」
(2014년 8월 4일 부터 11월 30일까지 만 22~36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며, 서울 청년취업자 표본 수는 907명)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서울 청년취업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월평균 임금을 50.2만 원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직장 만족도는 비슷하게 나타남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월평균 임금은 208.5만 원으로 가장 적지만, 만족도는 3.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서울 청년취업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월평균 임금을 50.2만 원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직장 전체 만족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261.8만 원,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11.6만 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0.2만 원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
- 직장 만족도는 남성이 3.57점으로 여성(3.55점)과 유사하게 나타남
-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세부 항목은 인간관계(3.65점), 업무내용(3.59점), 인사고과 공정성(3.5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문은 임금(3.18점), 장래성(3.29점), 통근거리(3.34점) 순으로 나타남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월평균 임금은 208.5만 원으로 가장 적지만 만족도는 3.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회사 유형별로 월평균 임금을 보면 '외국인 회사'가 291.1만 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법인단체'(246.0만 원), '민간회사 개인사업체'(240.6만 원) 순
- 이에 반해 '정부부처 및 지자체'(208.5만 원), '공공기관'(223.9만 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만족도는 각각 3.71점, 3.67점으로 회사 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만족도가 높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세부 만족도 1순위는 각각 복리후생(3.87점), 고용안정(3.87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만족도가 가장 낮은 '민간회사 및 개인사업체'의 세부 만족도 1순위는 인간관계(3.65점)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서울시 청년취업자 성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남자	여자	전체
월평균 임금	261.8	211.6	239.4

주 무응답(응답거절, 모름)은 제외했으며 가중치 적용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4), 청년패널조사

〈표 2〉 서울시 청년취업자 회사유형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외국인 회사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투자 기관, 정부출연 기관, 공사합동 기업)	(재단,사단) 법인단체	정부부처 및 지자체 (예:공무원, 고용노동부, 교육과학 기술부 등)	특정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전체
월평균 임금	240.6	291.1	223.9	246.0	208.5	188.9	242.6

주 무응답(응답거절, 모름)은 제외했으며 가중치 적용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4), 청년패널조사

〈표 3〉 서울시 청년취업자 회사유형별 만족도

[단위: 점]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외국인 회사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투자 기관, 정부 출연 기관, 공사합동 기업)	(재단,사단) 법인단체	정부부처 및 지자체 (예:공무원, 고용노동부, 교육과학 기술부 등)	특정회사나 사업체에 소속 되어 있지않다	전체 청년 취업자
전체 만족도	3.54	3.57	3.67	3.58	3.71	3.54	3.56
업무내용	3.58	3.53	3.64	3.69	3.62	3.50	3.59
사회적 공헌	3.31	3.29	3.87	3.45	3.83	3.10	3.36
자기발전	3.41	3.44	3.72	3.40	3.47	3.52	3.43
임금/ 소득	3.17	3.33	3.31	3.13	3.28	3.07	3.18
고용안정	3.53	3.44	3.87	3.60	3.85	3.05	3.55
자율성	3.57	3.60	3.55	3.51	3.49	3.74	3.57
통근거리	3.33	3.18	3.57	3.29	3.34	3.48	3.34
장래성	3.26	3.32	3.71	3.37	3.27	3.12	3.29
근로환경	3.51	3.53	3.76	3.61	3.48	3.17	3.52
인간관계	3.65	3.65	3.72	3.69	3.61	3.49	3.65
인사고과의 공정성 (임금근로자)	3.58	3.51	3.68	3.47	3.72	3.87	3.58
복리후생 (임금근로자)	3.42	3.78	3.73	3.46	3.87	3.92	3.47

주 5점 만점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4), 청년패널조사

*2014년 8월 4일 부터 11월 30일까지 만 22~36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며, 서울 청년취업자 표본 수는 907명

경제동향

요약

고용 취업자/실업률·고용률

생산 제조업지수/출하·재고지수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물가 소비자물가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주택월세가격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설·부도/신용보증

수출입 수출입액/품목별 수출입/국가별 수출입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최윤진 연구원 erdene@si.re.kr

경제동향 | 요약

고용
- 서울의 4월 취업자는 50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2천 명(–0.4%) 감소
- 산업별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7.3%) 가장 크게 감소
-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
-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 실업률은 4.4%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

생산
- 서울의 4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1.9로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
- 4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 재고지수는 8.1% 감소하여 경기 회복/상승 국면을 시사

소비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2,63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전국(6조 5,715억 원)의 34.4%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1.9%), 대형마트 판매액(4.2%)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

물가
- 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1(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5%의 소폭 상승에 그쳐 저물가 기조 지속
- 신선식품물가지수(7.7%), 서비스물가지수(2.7%), 생활물가지수(0.9%)는 상승한 반면, 상품물가지수(–0.3%)는 하락

부동산
-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4개월째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전월 대비 0.10% 상승한 100.4 기록
-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8% 상승한 101.0으로 2개월 연속 상승폭 축소
- 서울의 4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3으로 준월세 하락폭은 축소되고 준전세의 상승폭이 확대되어 전월 대비 0.0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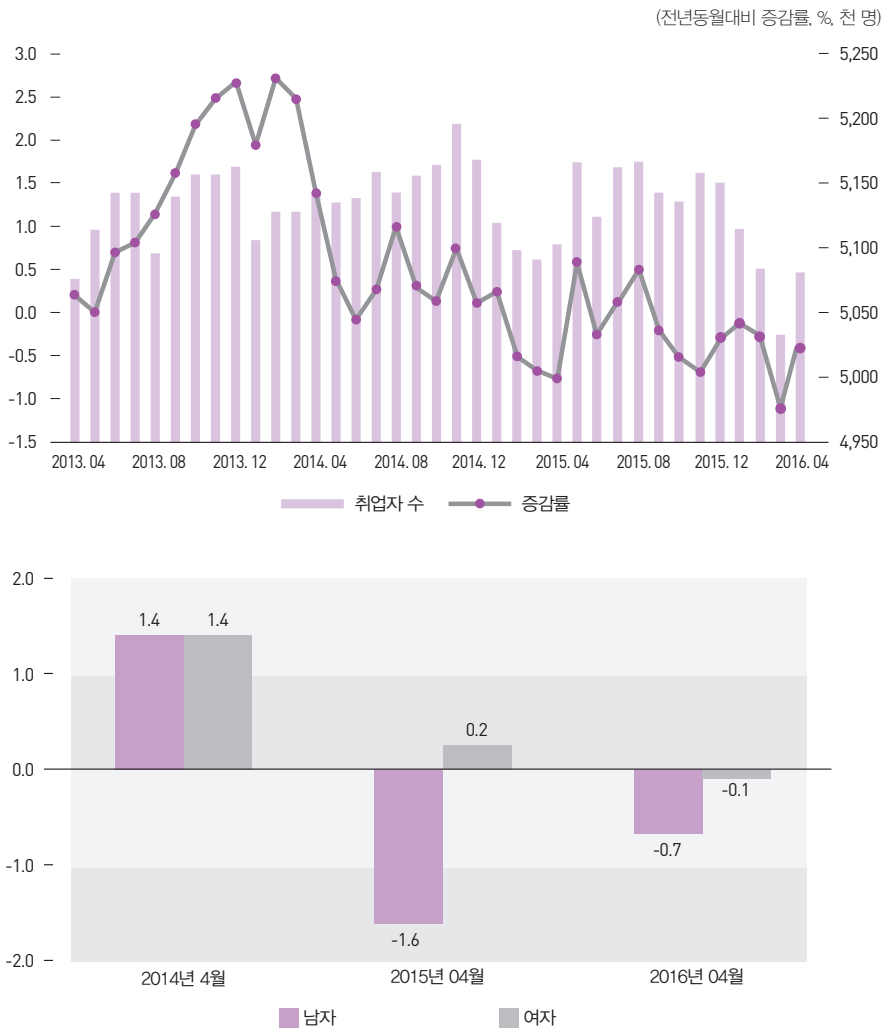
금융
- 서울의 4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643조 6,650억 원으로 전월 대비 0.7% 증가
- 서울의 4월 가계대출 잔액은 245조 3,709억 원으로 전월 대비 0.7% 증가
- 서울의 4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57조 507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3,154억 원(0.8%) 증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0%
- 서울의 4월 신설법인 수는 2,766개로 전월 대비 3.8% 감소, 부도법인 수는 7개로 전월보다 4개 감소
- 서울의 4월 보증지원금액은 805.9억 원, 보증지원건수는 3,570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33.8%, 32.6% 감소

수출입
- 서울의 4월 수출액은 55.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4월 수입액은 98.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1.3% 감소, 품목별로는 자동차,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취업자

서울의 4월 취업자 수는 50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

- 서울의 4월 취업자는 50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2천 명(−0.4%)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1천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명(−0.7%) 감소, 여자는 226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0.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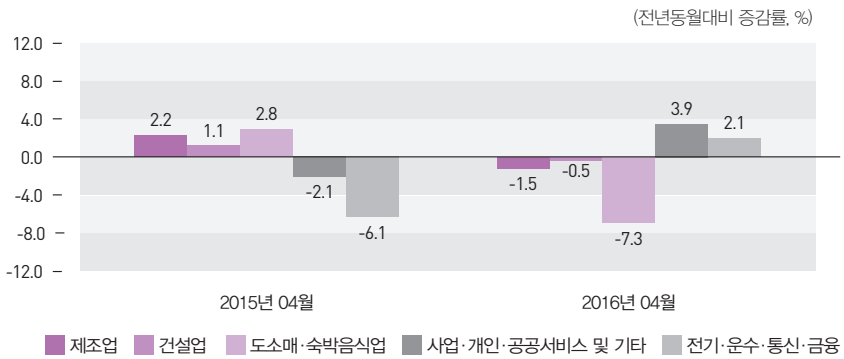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서울의 4월 산업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가장 크게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0만 6천 명(−7.3%), 제조업 8천 명(−1.5%), 건설업 2천 명(−0.5%) 감소한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만 명(3.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만 6천 명(2.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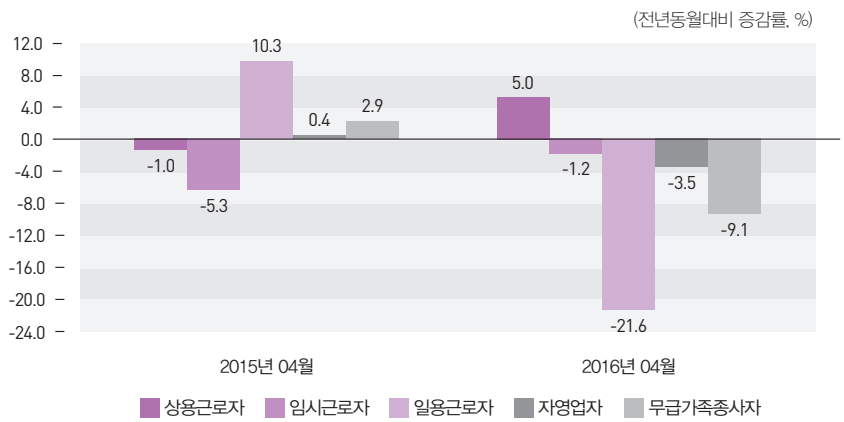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

서울은 4월에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비임금근로자는 모두 감소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6천 명(0.6%)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8천 명(−4.3%)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만 5천 명(5.0%)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만 4천 명(−1.2%), 일용근로자는 8만 5천 명(−21.6%)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3만 4천 명(−3.5%),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4천 명(−9.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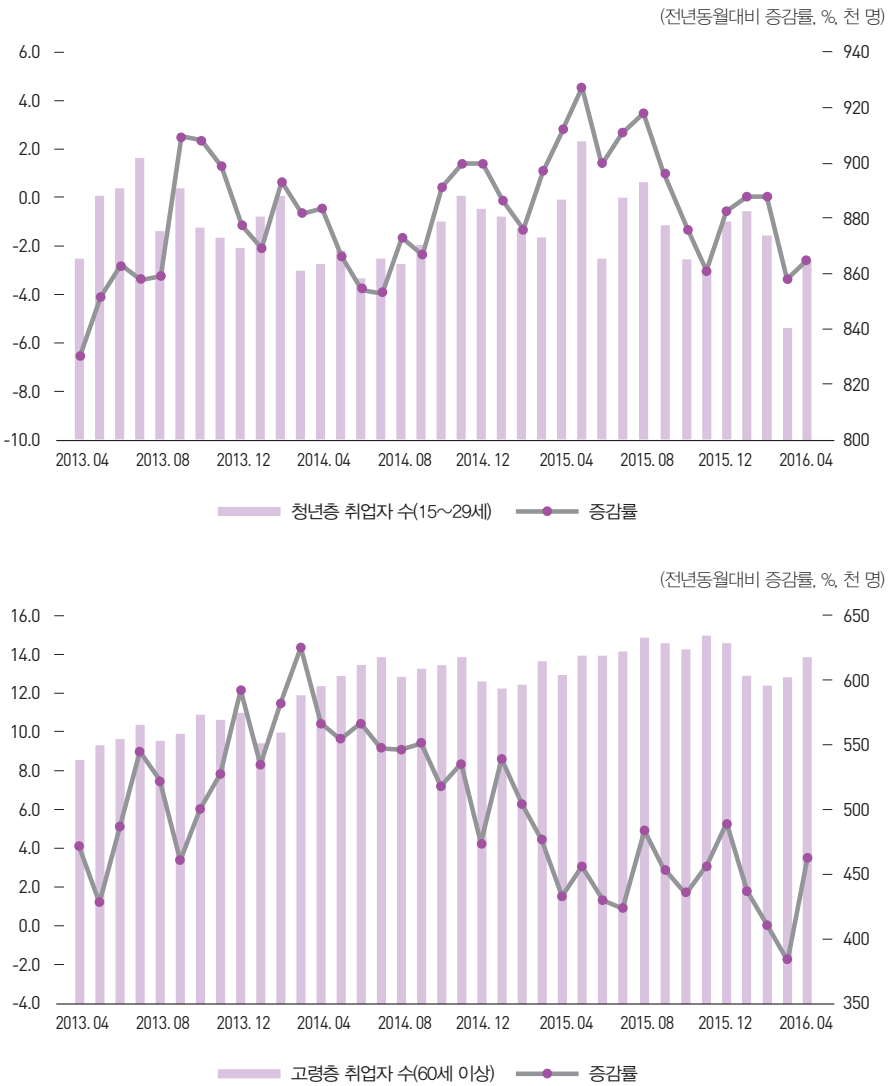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률

서울의 4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반면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

- 서울의 4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 수는 86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
- 서울의 4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2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
- 올해부터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었던 고령층 취업자는 4월에 상승세 회복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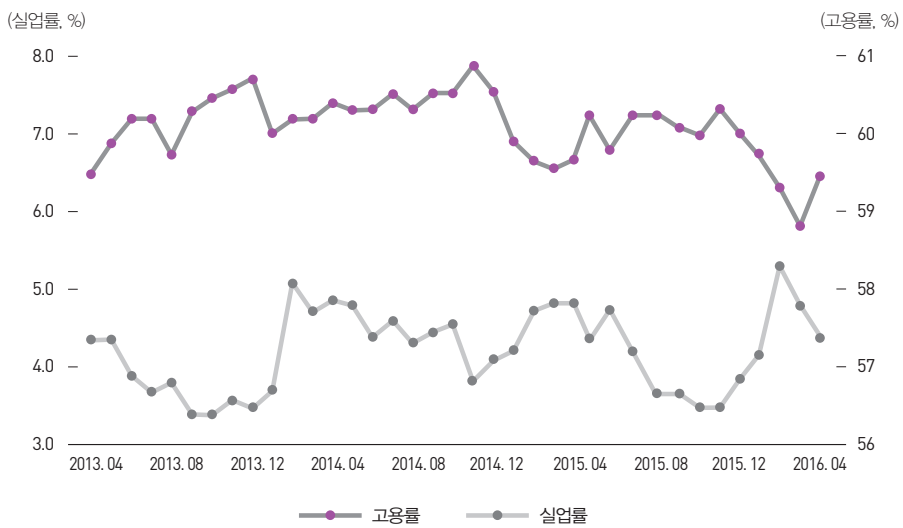
고용률 및 실업률

서울의 4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했고, 전국 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4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했으며 전국(60.3%) 보다도 낮은 수준 유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0%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 여자는 50.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

서울의 4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국 대비 소폭 높은 수준

- 서울의 4월 실업자는 23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4천 명(-9.3%) 감소
- 실업률은 4.4%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4%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여자는 4.4%로 전년 동월 대비 0.1%p 각각 하락
- 2016년 4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7%)에 비하여 0.6%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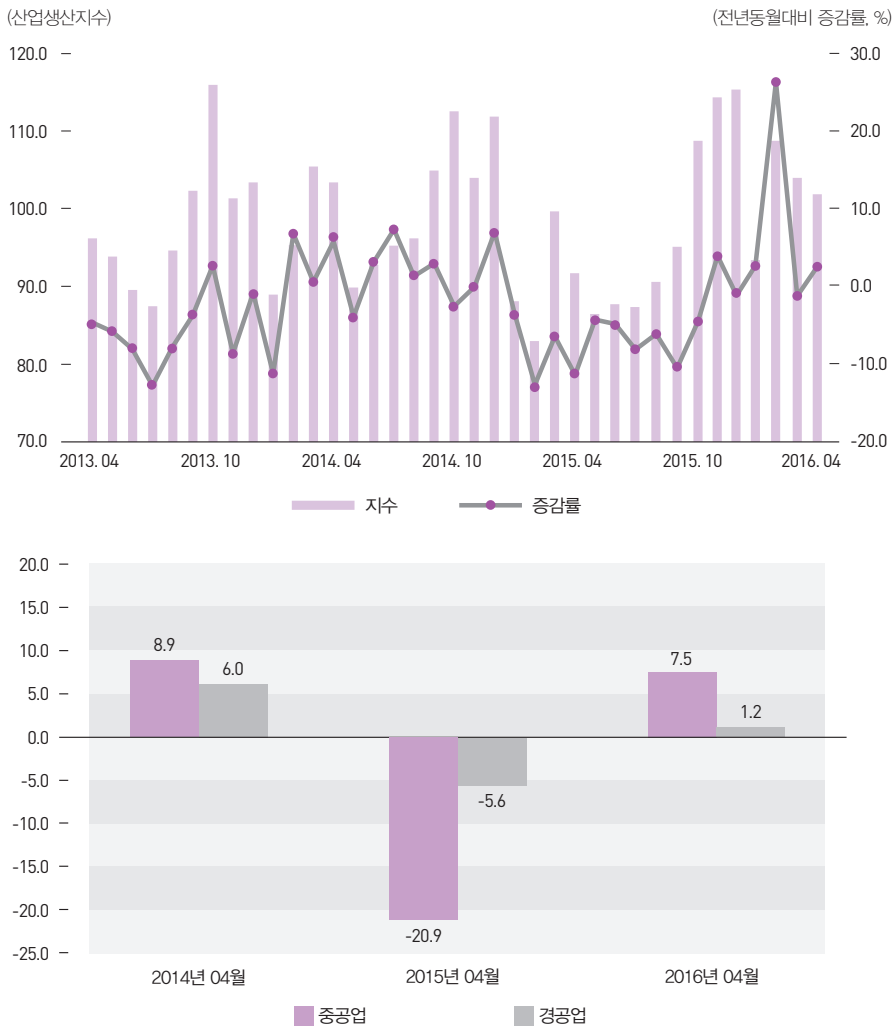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생산

서울의 4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1.9(201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

- 서울의 4월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하여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정(正)의 성장률 기록
- 전년 동월 대비 중공업 부문은 7.5%, 경공업은 1.2% 각각 증가
- 부문별로 전년 동월 대비 기계장비(66.5%), 의료정밀광학(37.3%), 의복 및 모피(4.8%) 등은 증가한 반면, 가죽 및 신발(−12.5%), 전기·가스·증기업(−12.0%) 등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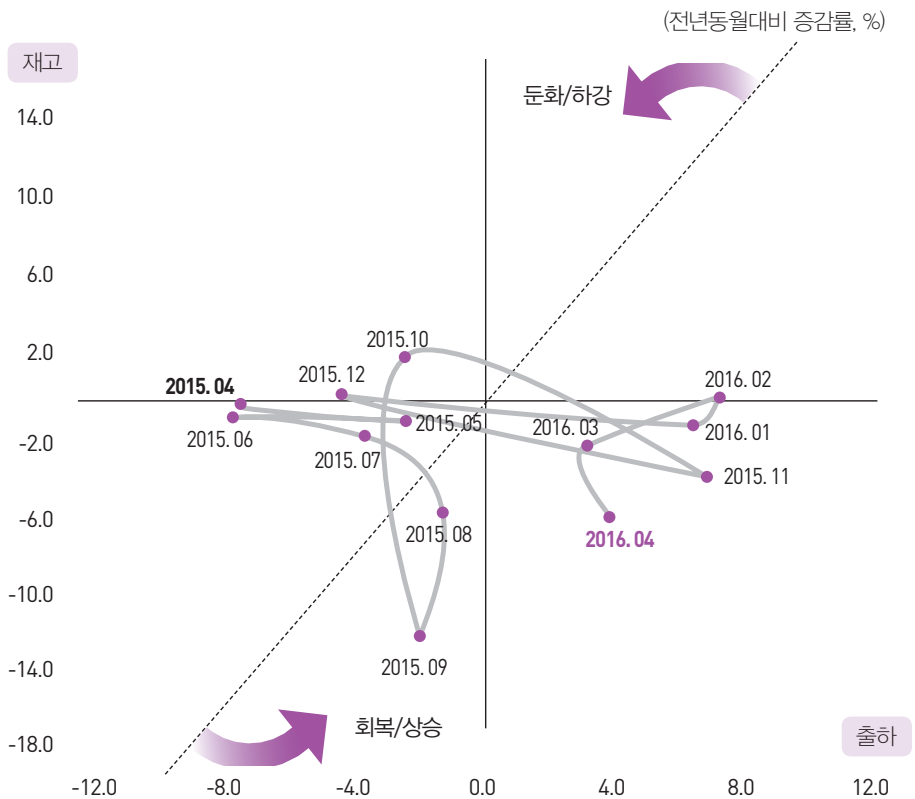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출하·재고 순환

서울의 4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 재고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1% 감소하여 경기 회복/상승 국면을 시사

- 서울의 4월 출하지수는 106.0(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
- 서울의 4월 재고지수는 134.5(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8.1%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소비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2,635억 원으로 전국(6조 5,715억 원)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
- 4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 59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2,04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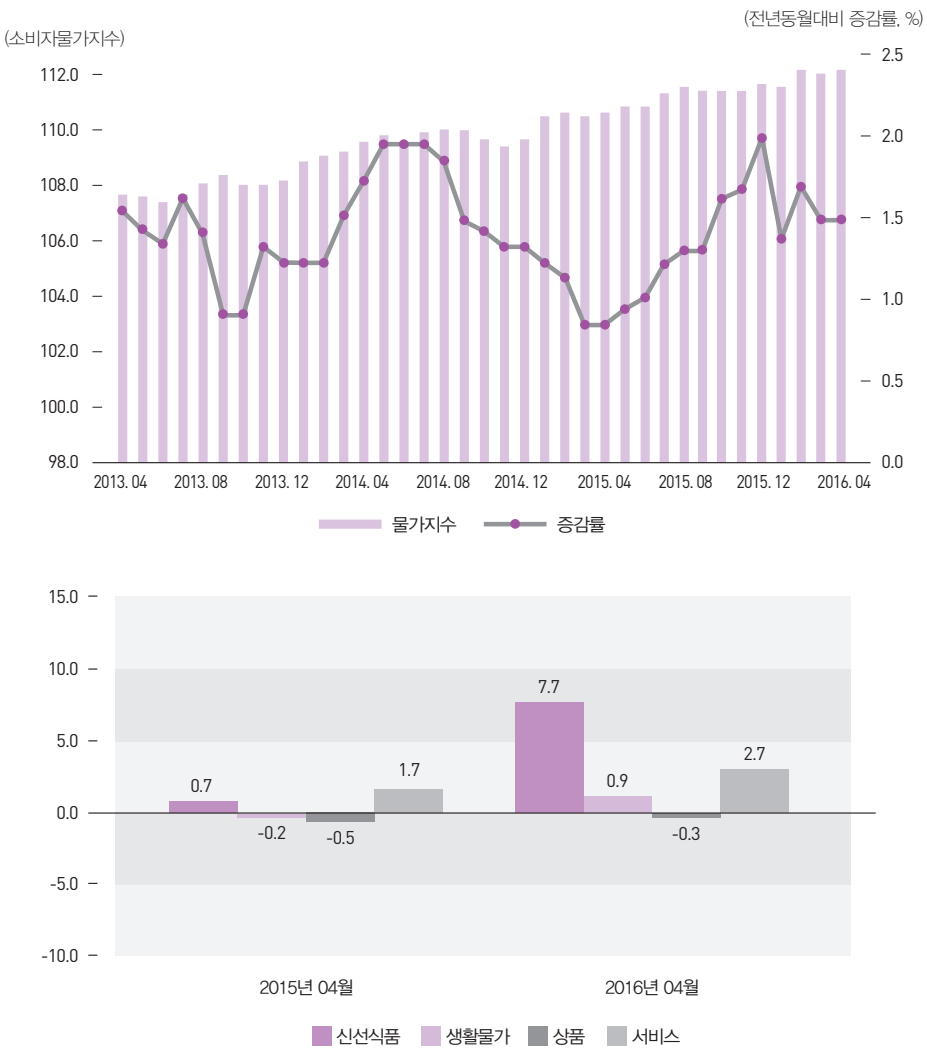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경제동향 | 물가

물가

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에 그쳐 저물가 기조 지속

-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1(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신선식품물가지수(7.7%), 서비스물가지수(2.7%), 생활물가지수(0.9%)는 상승한 반면, 상품물가지수(-0.3%)는 하락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주택매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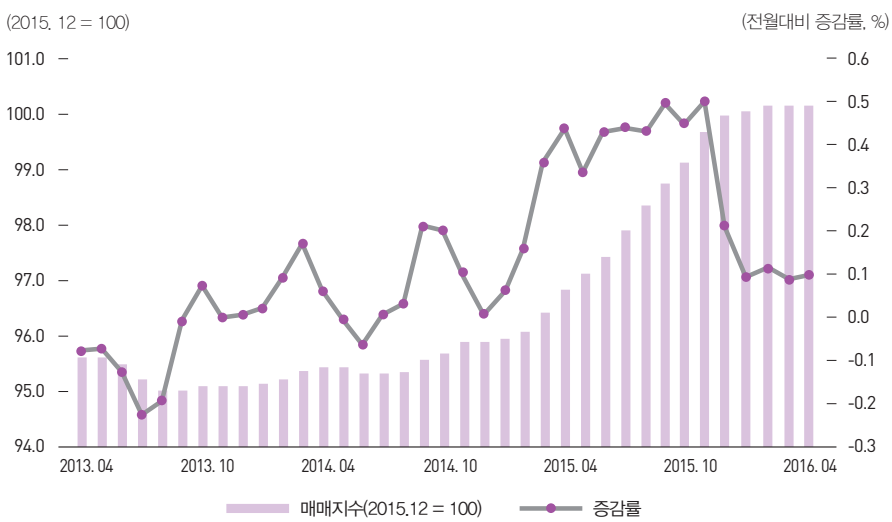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지수[주]는 전월 대비 상승

-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4로 전월 대비 0.10% 상승. 한강이남지역(0.08%)은 강남구 내 재건축 단지 중심의 투자수요 유입으로 상승세를 지속. 한강이북지역(0.12%)은 코레일 수색역세권 개발 등 개발호재 영향으로 은평구, 서대문구에서 높은 상승세를 기록
  - 주요 상승지역: 강남구(0.17%), 은평구(0.17%), 서대문구(0.16%)

주 2016년 1월 자료부터 기준연도(2013.3→2015.12) 변경

수도권은 상승한 반면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하락

- 전국의 4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2로 전월 대비 0.04% 상승. '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 시행 영향으로 매수심리 위축 현상이 지속됨. 수도권(0.08%)과 5개 광역시(0.01%)는 전월과 같은 상승폭을 기록한 반면, 기타 지방(-0.01%)은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



자료 KB국민은행

〈그림〉 서울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

-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주](1,771만 원)은 전월 대비 0.46% 상승, 거래건수(8,515건)는 20.8% 증가
- 강남구(1.34%), 서대문구(1.23%)에서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이 상승한 반면, 중구(-2.42%)에서는 하락.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노원구(810건), 강서구(617건), 강남구(556건) 순임

주 부동산114

주택전세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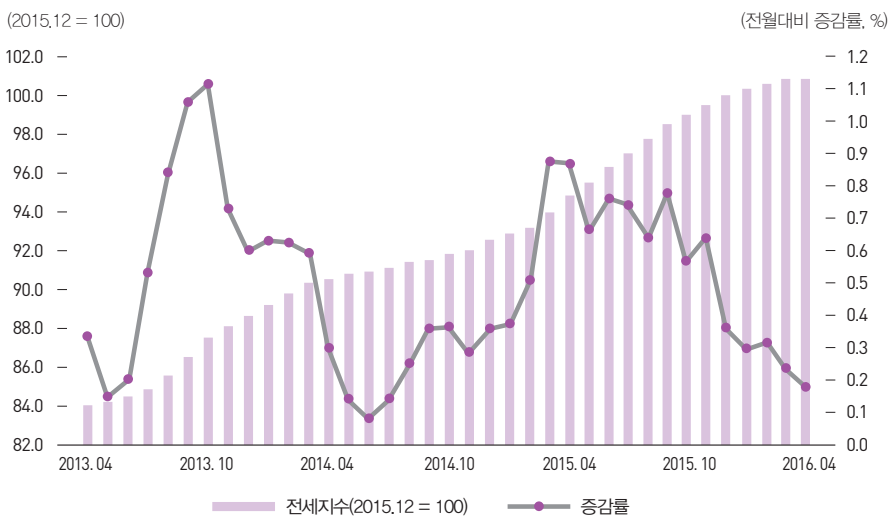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지수[주]는 전월 대비 상승

-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01.0으로 전월 대비 0.18% 상승. 한강이남지역(0.13%)은 전월 대비 상승률 둔화. 한강이북지역(0.23%)은 중랑구에서 2018년 남양주 신도시 입주 대기수요 유입과 마포구·서대문구에서 여의도 출퇴근 직장인 수요 유입이 발생하여 상승세 지속
  - 주요 상승지역: 중랑구(0.48%), 마포구(0.37%), 서대문구(0.33%)

주 2016년 1월 자료부터 기준연도(2013.3→2015.12) 변경

전국의 4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전국의 4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1% 상승한 100.6을 기록. 저금리 기조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전세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이사철 이주 수요가 마무리 되며 전월 대비 상승률이 둔화됨. 수도권(0.16%), 5개 광역시(0.06%)는 상승률 둔화, 기타 지방(0.04%)은 소폭 확대



자료 KB국민은행

〈그림〉 서울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

- 아파트 평당 평균 전세가격[주](1,257만 원)은 전월 대비 0.3% 상승, 거래건수(8,272건)는 14.3% 감소
- 서대문구(2.53%)와 종로구(1.57%) 지역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이 매우 높은 상승률을 기록. 거래건수는 노원구(915건), 강남구(779건), 송파구(636건) 순임

주 부동산114

주택월세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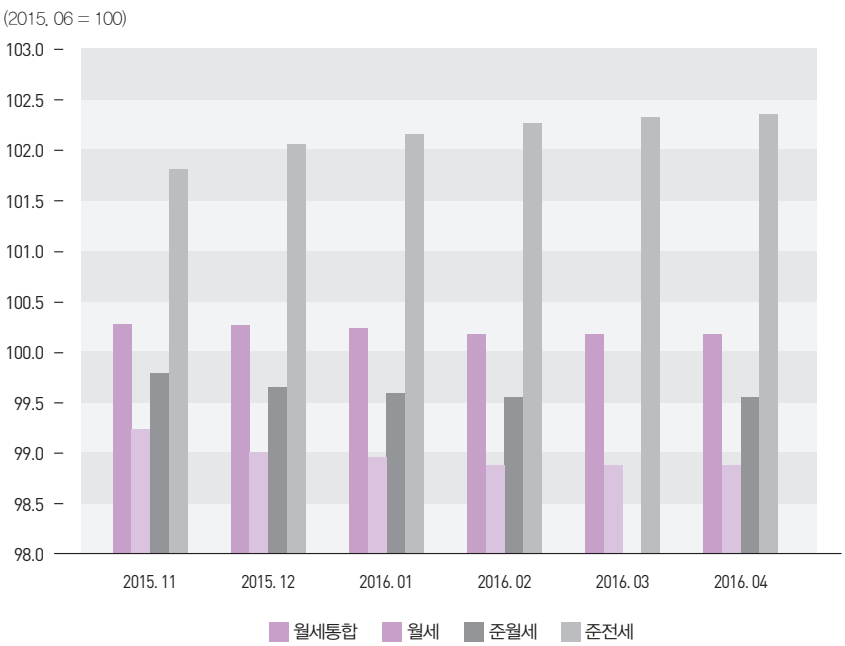
서울의 4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서울의 4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3으로 전월 대비 0.01% 상승. '준월세'의 하락폭은 축소되고 '준전세'의 상승폭은 확대되어 전체적으로 지난달 보합에서 상승 전환
- 한강이남지역(0.00%)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로구, 관악구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의 하락폭 확대로 보합 유지. 한강이북지역(0.02%)은 중랑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승해 전체적으로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

주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이면 '월세', 보증금이 전세금의 60% 초과하면 '준전세', 월세와 준전세 중간영역의 월세는 '준월세'로 구분

전국의 4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과 보합

- 전국의 4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3으로 전월과 보합.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가격 상승 부담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며 준전세를 중심으로 지난달 하락에서 보합 전환



자료 한국감정원

〈그림〉 서울시 월세통합가격지수 추이

경제동향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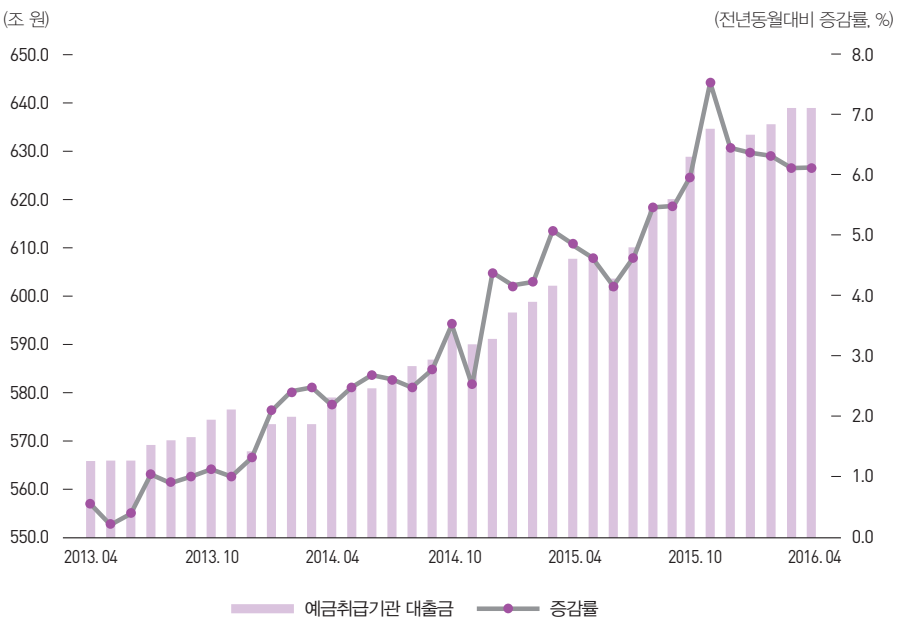
가계대출

4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643조 6,650억 원)은 전월 대비 0.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
- 그 중 예금은행(533조 4,196억 원)과 비예금은행(110조 2,454원)은 전월 대비 각각 0.8%, 0.3%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2%, 10.5% 증가

4월 기준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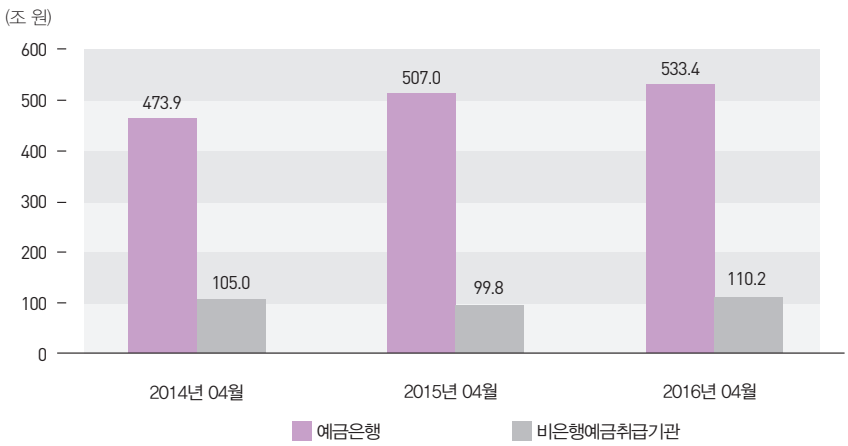
- 전체 대출금 잔액(1,799조 5,994억 원)은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
- 그 중 예금은행(1,372조 9,069억 원)과 비예금은행(426조 6,925억 원)은 전월 대비 각각 0.9%, 0.8%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6%, 11.4% 증가



주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종합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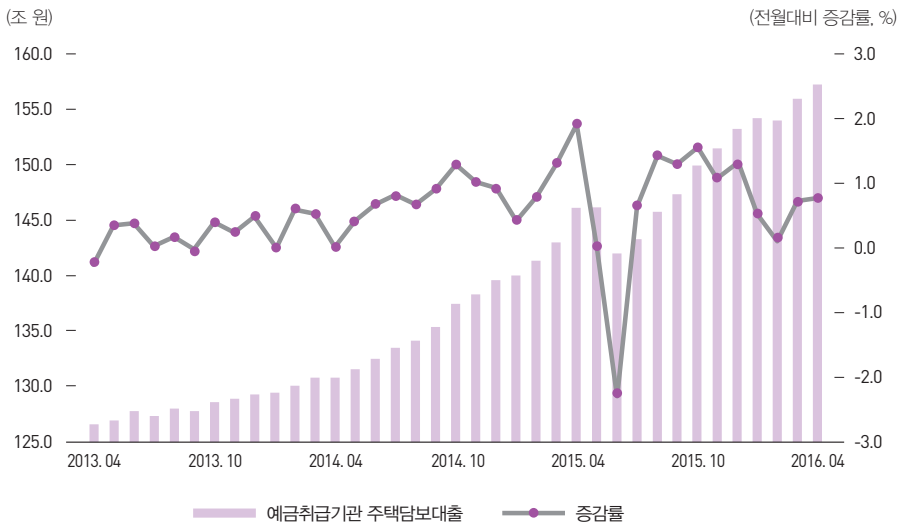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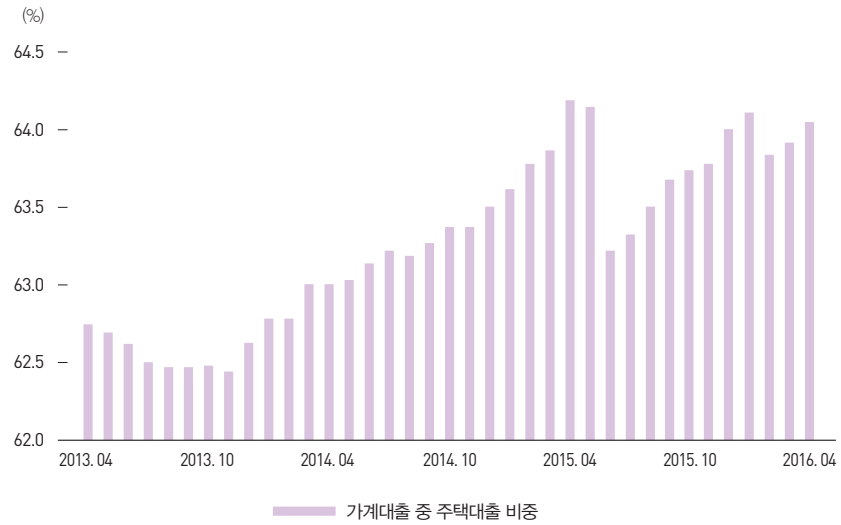
4월 중 서울의 가계대출 잔액과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전월 대비 증가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245조 3,709억 원)은 전월(243조 7,770억 원) 대비 0.7% 증가
- 그 중 주택담보대출(157조 507억 원)은 전월(155조 7,353억 원) 대비 1조 3,154억 원(0.8%)이 증가하였고,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64.0% 차지



주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주택담보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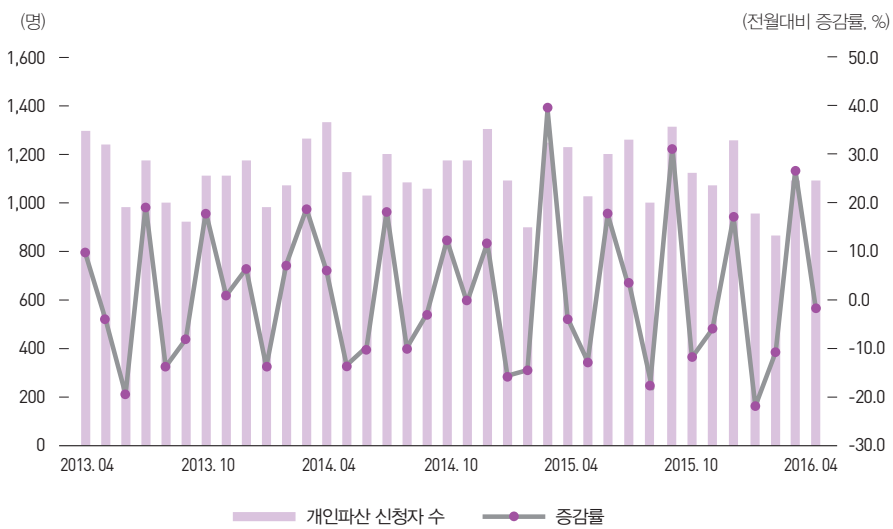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4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감소

• 서울의 4월 개인파산 신청자(1,092명)는 전월(1,100명) 대비 0.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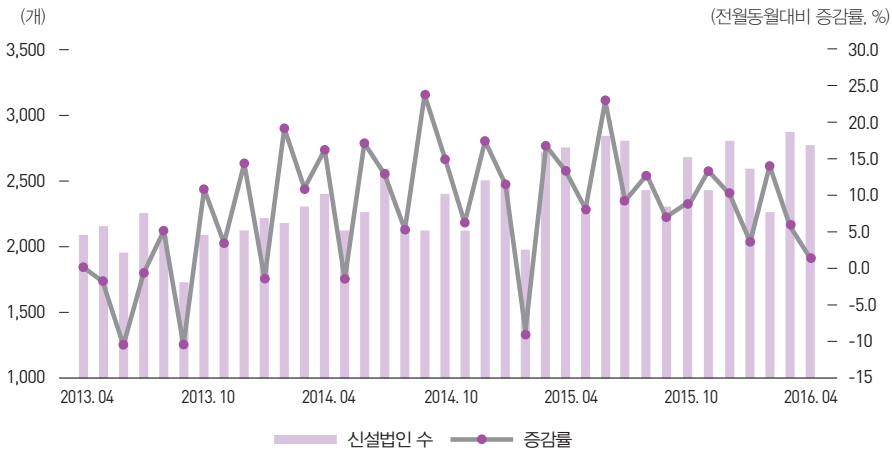
자료 대법원

〈그림〉 서울의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신설법인

서울의 4월 신설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766개로 전월 대비 3.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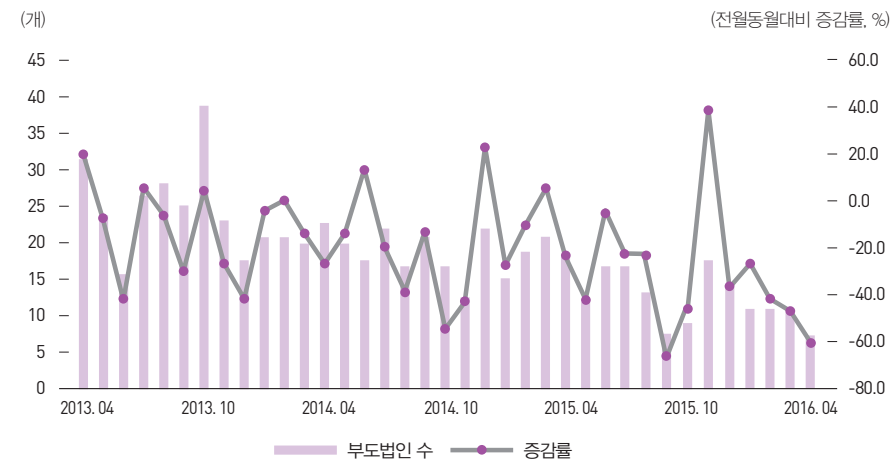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서울의 4월 부도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서울의 부도법인 수는 7개로 전월(11개) 대비 4개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1.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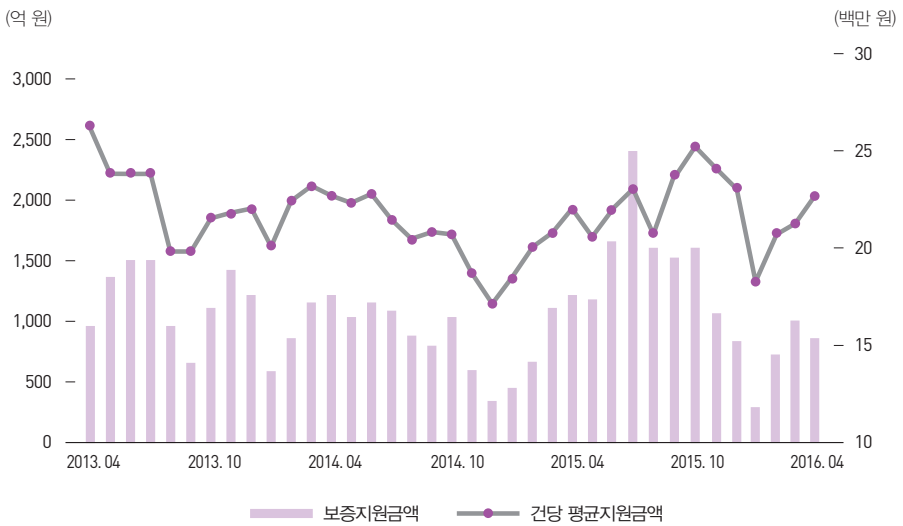
자료 금융결제원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신용보증

서울의 4월 보증지원금액, 보증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4월 중 805.9억 원 / 3,570건
- 보증지원금액과 보증건수는 각각 전월 대비 10.2%, 15.3% 감소,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3.8%, 32.6% 감소
- 건당 평균지원금액(2,260만 원)은 전월 대비 6.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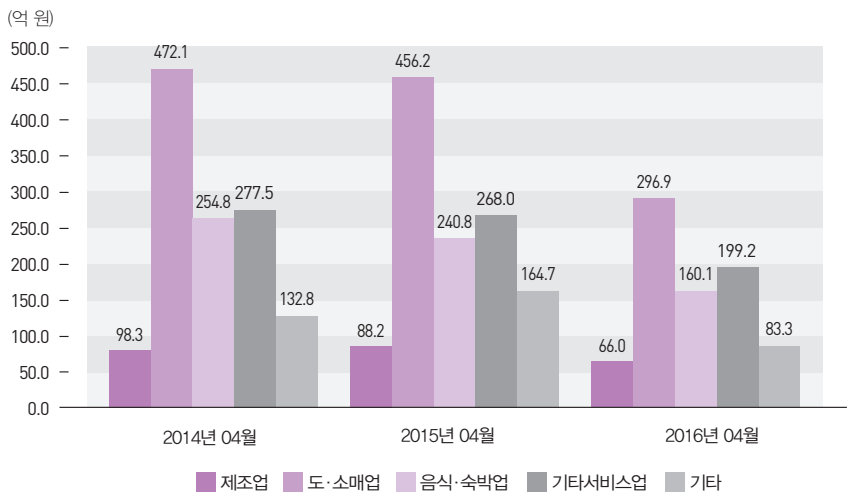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신용보증 지원금액과 건당 평균지원금액 추이

전 업종에서 보증지원금액이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신용보증공급 비중은 금액 기준 도·소매업(36.9%), 기타서비스업(24.7%), 음식·숙박업(19.9%), 건수 기준 도·소매업(33.4%), 기타서비스업(30.2%), 음식·숙박업(20.2%) 순임
- 도·소매업의 보증지원금액은 296.9억 원으로 전월 대비 10.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4.9% 감소. 보증지원건수는 1,192건으로 전월 대비 17.0% 감소
- 기타서비스업의 보증지원금액은 199.2억 원으로 전월 대비 7.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5.7% 감소. 보증지원건수는 1,079건으로 전월 대비 9.8% 감소
- 음식·숙박업(160.1억 원), 제조업(66.0억 원)의 보증지원금액이 전월 대비 각각 12.1%, 19.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3.5%, 25.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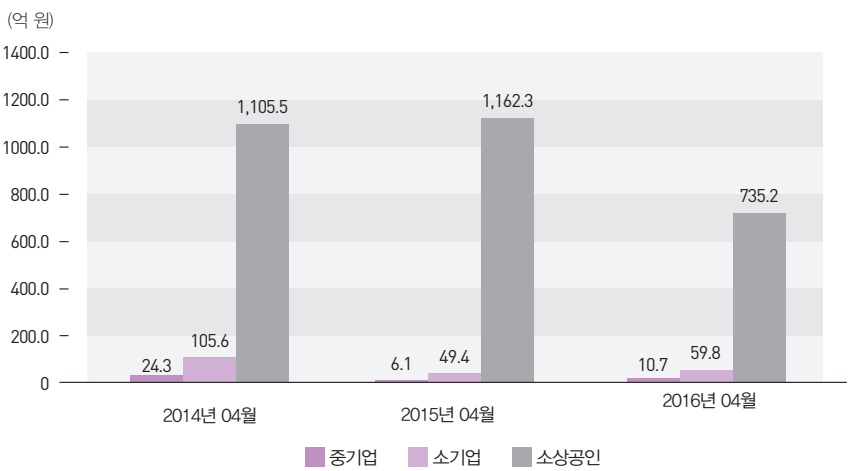
소상공인 보증지원은 전월 대비 감소한 반면 소기업, 중기업 보증지원은 증가

- 소상공인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1.4%, 전년 동월 대비 36.8% 감소한 735.2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91.3%를 차지. 소상공인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97.5%인 3,482건
- 소기업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0%, 전년 동월 대비 21.0% 증가한 59.8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7.4%를 차지. 소기업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2.2%인 77건
- 중기업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30.4%, 전년 동월 대비 74.6% 증가한 10.7억 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금액의 1.3%를 차지. 중기업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0.3%인 11건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경제동향 |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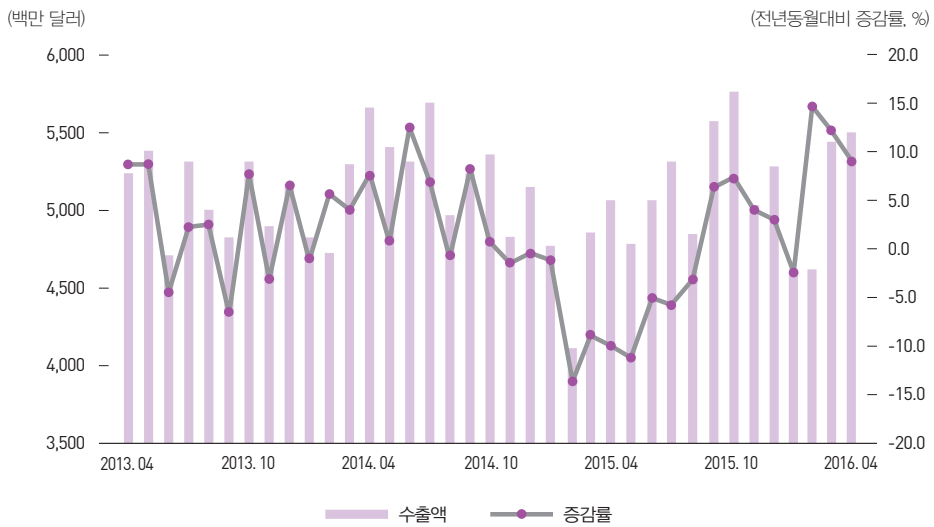
수출입

서울의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서울의 수출은 55.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하였고, 수입은 98.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1.3% 감소
- 전국의 수출은 410.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2% 감소하였고, 수입은 322.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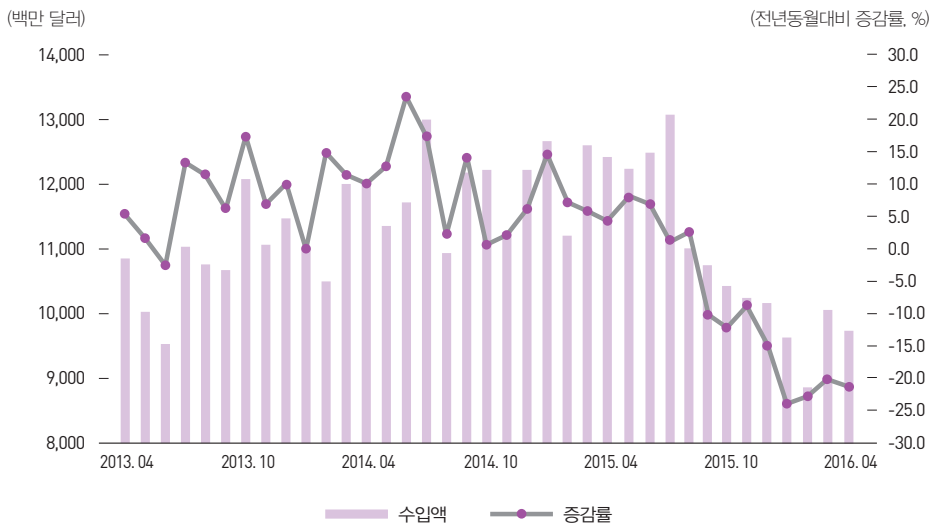
서울의 4월 수출 1순위는 무선통신기기, 수입 1순위는 자동차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무선통신기기(892백만 달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동차부품, 반도체, 합성수지, 편직물 순임.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전월 대비 22.4% 증가하였으며, 주로 미국(255백만 달러), 중국(237백만 달러)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자동차(772백만 달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유,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순임. 자동차 수입은 전월 대비 32.6% 증가하였으며, 주로 독일(441백만 달러)과 미국(113백만 달러)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 수입 급증에 따라 처음으로 서울의 수입 1순위 품목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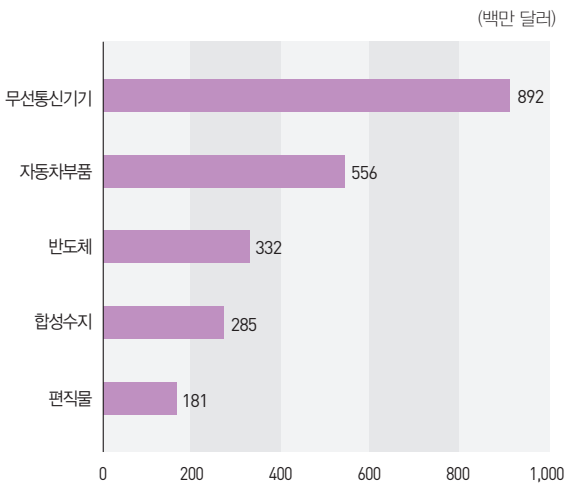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과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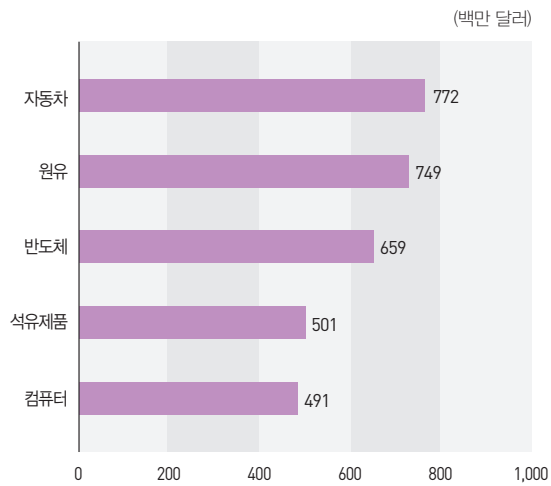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과 증감률 추이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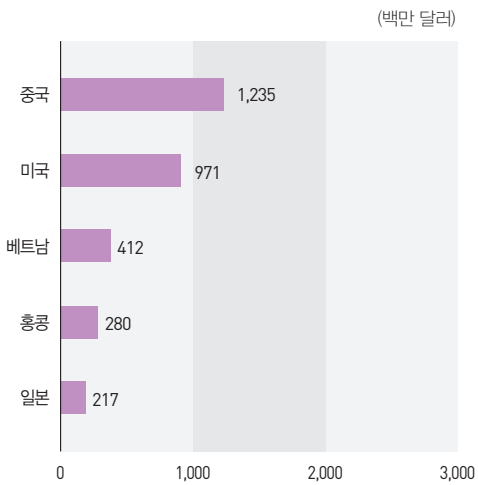
〈그림〉 4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4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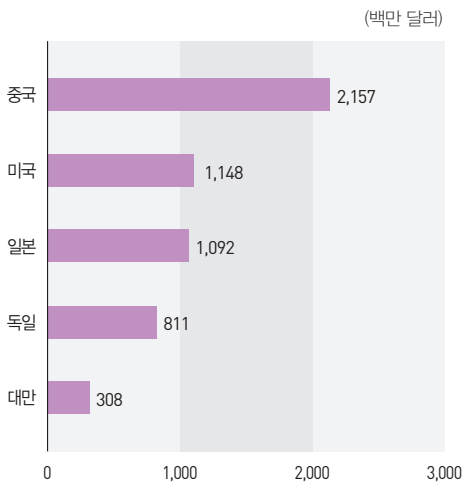
서울의 4월 수출·입 1순위 상대국은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1,235백만 달러)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순임. 대 중국 수출액은 전월 대비 3.4%,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
- 미국과 홍콩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7.1%, 23.1% 증가한 반면, 베트남과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1%, 23.8% 감소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2,157백만 달러)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순임. 대 중국 수입액은 전월 대비 3.3%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9.6% 감소
- 국가별 수입은 대체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독일로부터의 수입이 대폭 늘어나 전월 대비 각각 23.1% 증가 기록



자료 무역협회

〈그림〉 4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4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자료출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6년 4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 경인지방통계청, 『2016년 4월 서울시 고용동향』
- 경인지방통계청, 『2016년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 국민은행, 『2016년 4월 월간 KB주택가격동향』
- 대한민국 법원, 법원통계월보, 『http://www.scourt.go.kr』
- 부동산114, 『2016년 4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 부동산114, 『2016년 4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전세가격』
- 서울신용보증재단, 『2016년 4월 신용보증동향』
-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 중소기업청, 『2016년 4월 신설법인동향』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 한국감정원, 『2016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경제통통

FOCUS

- 동대문 상권 '중국산→한국산 둔갑' 유명브랜드 짝퉁 퇴출

ZOOM IN

-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 역량 키우는 7단계 맞춤 지원
- 330년 역사 베르사유 왕실 채원에 '서울텃밭' 문 열어

HOT ISSUE

- 세종대로 횡단보도가 서울 365 패션쇼 런웨이로 변신
- '도시문제 해결하는 30시간의 열정' 해커톤 열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고태경 kotaekyung@seoul.go.kr

FOCUS | 01

동대문 상권 '중국산→한국산 둔갑' 유명브랜드 짝퉁 퇴출

서울시가 국내 제조업, 특히 동대문 패션산업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불법 공산품 퇴출에 나선다. 중국에서 값싸게 들여온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의류 라벨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바꿔치기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나, 유명 브랜드를 베낀 일명 '짝퉁' 의류를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원산지 세탁행위 상시모니터링 등 감시단속 체계강화, 관광중심지 중심 지속 단속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세탁 행위를 6월부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본부세관, 자치구가 함께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민간감시원과 협력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감시·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 공산품 근절을 위한 원년 선포식'을 통해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복제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 ▲상인들은 건전한 상거래 조성을 위해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 ▲소비자 단체는 캠페인 및 지속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제품을 상시 수사하고 서울시, 자치구, 특허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축된 민·관 합동체계(7개 반 총 43명)를 유지해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 거점별로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공산품 안전품질 표시 정보은행 전국 최초 구축, 같은 원단은 검사시간과 비용 절감 가능

또한,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에 합격한 품질 좋은 의류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산품 안전·품질(KC) 표시 정보은행'(이하 '정보은행')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6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의류 원단은 공산품안전관리(KC, Korea Certification) 제도('10. 1. 1)에 따라 안전성 검사(안전·품질표시 검사)에 합격한 원단만을 유통할 수 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검사시간, 비용 부담 등으로 KC 표시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보은행'은 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에 대한 안전기준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시스템에 등록·공유되면 같은 원단을 사용하는 다른 상인이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검사시간(평균 5일)과 비용(평균 9~18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보은행에 원단 안전기준 검사를 등록하면 검사비용의 절반을 시(30%)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20%)이 부담한다.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ZOOM IN I 01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 역량 키우는 7단계 맞춤 지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유망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컨설팅과 IR(Investor Relations) 등을 지원하는 총 7단계로 구성된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세미나 →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 컨설팅 →국내/외 IR →투자협상 등 7단계 지원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①투자유치 세미나 ②투자유치 역량강화 전문교육 ③기업별 IR컨설팅 ④국내 투자상담회(IR) ⑤해외진출 컨설팅 ⑥해외 투자상담회(IR) ⑦투자협상 지원 등 7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기업별 IR 컨설팅'은 전직 벤처캐피털리스트 등 투자금융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실제 방문해 상황을 진단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재무추정,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수립, IR자료 작성 지원 등 기업 현황에 가장 필요한 분야를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내·외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회사를 소개하고 투자를 제안하는 IR은 행사성 투자설명회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자기관과의 사전접촉을 통해 투자기관이 관심을 표명한 기업과 해당 투자기관 간 1:1 개별상담 방식으로 진행해 투자유치 성사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IR 이후에도 투자조건 협상 자문 및 계약서 감수 등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투자상담회(IR)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중국)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해외 IR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해외진출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하며, 중국 비즈니스 전문가가 중국시장 교육과 진출 전략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중국 투자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IR 피칭스킬도 교육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프로그램이 기업의 역량강화와 글로벌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년보다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한 만큼 평소 자금조달에 대해 어렵고 막연하게만 느끼던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유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투자유치과

ZOOM IN I 02

330년 역사 베르사유 왕실 채원에 '서울텃밭' 문 열어

베르사유 왕실 채원에 '서울텃밭'이 조성된다. 330여 년 전인 루이 14세 시기에 조성된 베르사유 왕실 채원은 9ha 면적에 400여 종의 과일과 채소, 꽃, 허브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프랑스 고급전문조경사 양성기관인 베르사유 국립조경학교가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베르사유 국립조경학교(학교장: Vincent Piveteau)와 '서울텃밭'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작물을 파종하여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텃밭'은 베르사유 왕실 채원 정원사가 직접 관리하며 '서울텃밭'을 소개하는 안내 간판과 작물 표지판도 한국어와 불어로 표기하여 설치된다.

2020년까지 운영,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콩을 주 재배 작물로 선정해 개성과 의미 더해

'서울텃밭'은 60㎡ 규모에 2020년까지 5년간 운영되는데, 2016년 유엔이 정한 '세계 콩의 해'를 기념하여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콩(백태, 서리태)을 주 재배 작물로 선정하였고, 그 외 재배 작물은 우리 텃밭에서 주로 재배하는 엽채류(상추, 쑥갓, 열무 등) 대신 우리 식생활과 밀접하지만 작물 고유의 특색이 쉽게 드러나고, 수려한 색감으로 미적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는 작물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주요 재배작물은 콩, 목화, 메밀, 수수, 도라지, 당귀, 부추, 배추, 무이며 '서울텃밭' 둘레에는 우리 정서와 친근한 경관 작물인 봉선화를 파종하여 한국의 미를 표현하였다. 올해 일년생 작물재배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다년생 작물인 머루, 다래 등과 수생식물인 연근, 왕골 등 재배작물을 다양화할 계획이며, 텃밭음악회, 수확 농산물 나눔행사 등을 할 예정이다.

2012년 도시농업 원년 선포 3년만에 도시농업 면적을 네 배 이상 늘리고 생태계 회복 노력

서울시는 2012년 6월 '도시농업 원년'을 선포한 지 3년 만에 옥상텃밭, 학교농장, 상자텃밭 등 도시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농업 면적을 네 배 이상(29ha → 141ha) 늘렸으며,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유서 깊은 베르사유 왕실 채원에 조성된 '서울텃밭'이 서울 도시농업을 알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문화융합경제과

HOT ISSUE I 01

세종대로 횡단보도가 서울 365 패션쇼 런웨이로 변신

세종대로 신청사와 시의회 건물 사이에 신설된 횡단보도가 서울 365 패션쇼의 런웨이로 바뀐다. 모델을 꿈꾸는 일반인 모델 30명은 이날 장광효, 명유석, 홍혜진, 권문수 등 서울패션위크 참가 디자이너의 의상을 입고 런웨이에 올랐다.

3색 신호등 모티브로 신설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 40초간 횡단보도 런웨이

서울시는 차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설된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신호 40초간 '횡단보도 런웨이'를 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런웨이 무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색 패션쇼를 6월 2일(목) 30분간 진행하였다.

이번 패션쇼의 모티브는 '3색 신호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장광효, 명유석, 홍혜진, 권문수 등 4인의 디자이너가 동참해 '걷는 도시, 걷기 좋은 도시 서울'을 알리고, 동시에 교통안전을 강조했다. 횡단보도를 런웨이로 삼아 진행되는 이번 패션쇼는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40초간의 보행신호 시에만 진행되었다.

신진디자이너에게는 무대를, 무대 꿈꾸는 모델 지망생에겐 무대 경험 선사하는 패션쇼

특히 이번 패션쇼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미취업 모델지망생들이 '서울 365 패션모델' 선발을 계기로 모델 교육과정을 통해 런웨이 무대에 서게 되는 '전문 모델을 꿈꾸는 모델 지망생들의 꿈의 무대'이기도 하다. 현재 1기 모델 참가자 중에는 30대 중반인 두 아이의 아버지, 법대 졸업생, 8년 경력의 힙합댄서, 서울대 홍보모델 출신 등 이색 경력의 소유자들이 패션모델의 꿈을 위해 도전하고 있다.

신진디자이너와 모델 지망생에게는 무대를, 시민에게는 문화를 선사하는 '서울 365 패션쇼'는 횡단보도 패션쇼와 같이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와 패션을 융합한 복합적인 문화 콘텐츠인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 곳곳에서 다양한 콘셉트로 패션쇼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문화융합경제과

HOT ISSUE | 02

‘도시문제 해결하는 30시간의 열정’ 해커톤 열려

아이디어와 협업으로 복지, 환경, 문화관광, 건강, 교통 등 각 분야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0명이 지성을 모으는 ‘해커톤’이 열린다.

※ 해커톤(Hackathon)이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정해진 시간 동안 특정한 주제에 대해 팀을 구성하여 아이디어부터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대회를 뜻한다.

무박 2일간 진행, 메이커톤과 아이디어톤 두 분야로 개최해 아이디어+기업 제품 사업화 연계

해커톤은 6월 25일~26일 무박 2일 동안 서울 상암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진행되며, 도시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신청자 중 사전심사를 통해 메이커톤(MAKE-A-THON) 40팀과 아이디어톤(IDE-A-THON) 60팀, 총 400명을 선정해 약 2주간 사전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번 해커톤은 메이커톤(프로토타입 제작)과 아이디어톤(기술기반 실현 가능한 신제품, 신서비스 제안)의 두 분야로 개최되며, 시민들이 제안한 실현 가능한 기술개발을 토대로 실제 기업의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으로 연계한다.

서울거주 외국인 포함 시민 400명 아이디어와 R&D 접목 ‘서울도시문제’ 해법 함께 찾을 것

이번 해커톤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0명의 시민 아이디어와 R&D를 접목하는 첫 사례인만큼 교통정체, 층간소음, 미세먼지 등 서울의 도시문제의 해법을 찾고 기업의 사업화와 연계하는 등 도출과제를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메이커톤 수상팀에게는 서울형 R&D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최대 5점) 및 국내특허등록 지원의 특전(대상)과 사전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과 개발지원이 제공되며, 외국인 다국적팀 메이커톤 수상팀에게는 창업비자 필수점수 반영 및 특허등록 지원(대상)의 특전이 주어진다.